

감염병 예방과 도민 건강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 홍역 및 A형간염 대비 보건소 비상근무 실시
- ▶ 석탄화력 취약지역 건강영양조사 실시
- ▶ 야외 진드기 감염병 예방 캠페인 전개

충남도정



2019년 5월 15일 ~ 5월 24일 제843호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발행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충남형 행복주택...지금까지 이런 파격은 없었다

(예비부부·신혼부부·청년 등 입주 대상)

임대료 부담 ↓ 더 넓은 공간
안전한 육아공간은 '덤'

둘 출산하면 임대료 '공짜'
자녀 출생 따라 10년까지

59㎡형 더 넓어진 공간
방-거실-육아 맞춤형 변형

출산-안심육아 프로그램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안심보육

전체 5000가구 건설 목표

2022년 아산에 600가구 입주

수요와 거주 편의성을 반영해 36㎡, 44㎡, 59㎡형으로 자녀 출생수에 따라 넉넉하게 제공된다.

특히 층간 소음이 없는 바다충격을 차단구조로 시공해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을 차단한다.

또 특화된 디자인으로 방과 거실 육아공간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자재사용 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 모래놀이터, 실내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충분한 여가공간을 확보한다.

특화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임신중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사전검진 등이 지원된다. 또 출산 후에는 육아용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며, 장난감·도서대여, 시간제보육실이 운영돼 워라벨(일과 가정의 균형) 향상과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충남형 행복주택 5000가구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1000가구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가구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가구로 나눠 짓는다. 600가구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 5582㎡의 부지에 1369억 원을 투입해 건설된다.

앞서 지난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사업을 총괄하고 아산시는 아파트 용지 제공 및 국공립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건축비와 운영을 지원하고 충남개발공사는 건설을 맡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기존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5000가구의 충남형 행복주택을 지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축도시과 041-635-4647

/도정신문팀



서해의 독도, 충남이 수호 지난 5일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를 찾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 가운데)가 통합기준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격렬비열도서 민생 고충 청취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논의

생태·보호구역 관리상황 점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를 찾아 국가 관리 연안항 지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 차원의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양 지사는 지난 5일 태안군 도서지역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충남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와 아동생활시설 등을 차례로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격렬비열도의 생태환경 가치 및 보호구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개발 필요성 등 향후 도 차원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격렬비열도는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로서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영토 보전(불법어업 관리) 등 자주권 수호를 위해 국가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 4월 태안군과 함께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 기준점인 격렬비열도에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사업은 KBS 대전총국과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양 지사는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 최서단으로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도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양 지사는 태안면 원북면에 위치한 아동생활시설인 희망터전·봄 언덕으로 자리를 옮겨 시설 운영자 및 아동·청소년과 간담회를 갖고, "운영자들의 노력에 비해 이에 대한 지원과 처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근무환경과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2

"이봐 해봤어"...전국 최초 파격 담은 충남형 청년주택

도정 톨아보기

인구절벽 막을 강력한 수단
또 하나의 충남형 선도사업

○...반가운 청년 아파트

"이봐 해봤어?"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다. 진취적 도전정신이 담긴 문법이다. 행정은 두 갈래다. 해봤던 것과 해보지 못한 것. 해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가 행정력이다.

그런면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해보지"는 적극행정이다. 주거비는 낮추고, 공간은 높이고, 최상의 육아환경이라는 삼박자를 고루 갖는다. 공급 면적을 넓힌 것과 친환경 자재 사용, 층간소음도 없앤 것이 눈에 띈다. 다양한 육아지원 프로그램으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보강했다. 둘을 넣으면 10년 연장이 가능한 옵션을 포함했다. 임대료는 월 15만 원이지만 하나를 넣으면 50%,

두 자녀를 넣으면 무료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기피와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을 포용하는 가장 유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도권에 편중된 청년 주거정책의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근시안적이지 않은 실질적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점에서 충남의 실험은 대담하다. 또 충남의 도전정신이다.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꿈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태안의 격렬비열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서해 요충지다. 양승조 지사는 5일 격렬비열도를 찾아 시설을 점검했다.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는 생태환경의 보고이자 대한민국 서해 영토의 상징이다. 대중국 교류 및 환황해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충남도의 의지가 함축됐다.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자 해양영토 보전이라는 자주권 수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개발도 시급하다. 격렬비열도는

이름은 멀리서 보면 모여 있는 섬들이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 외로운 '기러기 섬'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이 요구된다.

○...충남 강소특구, 대한민국 미래

충남도가 천안아산KTX 역세권에 '충남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첨단산업의 대한민국의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재창출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천안아산역KTX역세권은 어떤 곳인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단지가 밀집된 대한민국의 플랫폼이다. 이곳에 강소특구로 지정해 청년 벤처창업과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충청인의 희망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특징

구분	LH 행복주택(평균)	경기도형(평균)	충남형(59㎡형)
임대료 (보증금/월세)	6,940만원/34.7만원	4,164만원/34.7만원 (보증금 이자지원 별도)	5,000만원/15만원 (2자녀 출산시임대료 면제)
주거 공간	16㎡/26㎡/36㎡	26㎡/36㎡/44㎡	36㎡/44㎡/59㎡
환경 조성	육아특화 (국공립보육시설, 공동육아)	공동체 활성화 (육아용품 공유, 공동육아, 공동체지원센터)	LH, 경기도+@ (@: 소음예방, 친환경자재, 신재생에너지 사용)



생태+근대 '휴양·체험관광 거점' 만든다

장항 일대 문체부 시범사업 선정 219억 투입, '생태트레킹코스' 개발

충남 서천 송림산림욕장 일원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유부도 갯벌, 전망산 옛 장항제련소 굴뚝 등 근대화유산과 어울려 '휴양·체험관광의 거점'으로 변신한다. 최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시범 사업' 대상에 서천 '세계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

년 동안 장항읍 송림·장암리 일원 43만 9443㎡에 체험관광 시설 등을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해안권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국비 109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219억 원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유부도 갯벌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으로 체험할 수 있고, 3D프린터를 활용해 철새나 소라 제작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자연유산 스마트기기 체험관도 건립된다. 또 10만㎡ 규모의 친환경 어드벤처 놀이시설과 숲속놀이터, 바다분수와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고, 해안 둘레길, 자연체험학습

시설 등도 조성하며, 송림산림욕장과 구 장항화물역, 장항도선장공원, 문화예술작장공간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 여행 코스도 개발·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계 보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생태계 복원 및 치유 과정 스토리텔링 트레킹 코스를 개발·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생태 관광의 매력을 선사한다. 이에 더해 홍보관 및 관광벤처창업센터를 마련, 관광 관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천군은 연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핵심 및 연계 사업을 완료한 뒤, 2024년부터 관광 프로그램 등을 본격 운영한다.

도와 서천군은 이번 사업에 기존 추진 중인 6080골목길 프로젝트, 도시탐험역 조성 등 장항 중심지 및 관광 사업을 연계, 장항 일원을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진흥과 041-635-2443



도·시·군의회, '더 행복한 충남' 한뜻

혁신도시 지정·노후석탄 폐쇄 등 시·군별 현안 해결 '머리 맞대'

충남도는 지난 10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의회의 의장(협의회장 김진호 논산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도정 현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2020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공동대응 방안' 논의와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 등의 현안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시·군의회의 의장들은 ▲KTX 천안아산 지하역 설치(천안) ▲국립충청국악원 유치(공주) ▲수소충전인프라 구축(보령) ▲충무교 단구간 확장(아산) ▲복합문화센터 조성(서산) ▲주차타워 조성(논산) ▲유량조정조 설치(계룡)를 건의했다. 또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당진) ▲상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금산) ▲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부여)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지방상수도 현대화(청양) ▲홍성역 시설 개선(홍성) ▲충청유교문화관광지역관광개발(예산) ▲가로림단 해상교량 건설(태안) 등에 대해서 도와 시·군 간 협업을 요청했다. 이에 양승조 지사는 "국비 확보의 최선책은 정부안에 반영하는 것만 큼,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발로 뛰겠다"며,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더 행복한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국 041-635-2333

충남도, A형간염 대응 체계 강화

환자 격리·즉시 신고 필요 접촉자는 2주 이내 예방접종

전국적으로 A형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A형간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도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발생 시 격리와 함께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환자 발생 신고 접수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 접촉자가 발견되면, 재난기금을 활용해 예방접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A형간염 예방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항체양성률이 낮은 20~40대를 중심으로 A형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A형간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백신 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확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정책과 041-635-4305

A형간염은 감염 환자와의 접촉이나,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 섭취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A형간염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15~50일 후, 평균 28일 후 심한 피로감, 식욕 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 증상이 발생한다.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A형간염 면역이 없는 성인의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된다. ●보건정책과 041-635-4305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9일 공주시 산업곤충연구소 잠령탑에서 양잠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2019년 품잠기원제'를 개최했다. 품잠기원제는 첫 누에사육기를 앞두고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인류를 위해 희생되는 누에의 영혼을 위로하는 전통 제례의식이다. ●농업기술원 041-635-6328

충남도 '수산 인재' 육성한다

교육생 27명 입학식 개최 14주간 현장·이론 집중교육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2일 서산 한서대학교 국제수산과학연구원에서 '수산업 전문가 양성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수산업 전문가 양성 과정은 도내 어촌·어업을 선도할 지역리더 및 전문 수산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도와 한서대가 교육협약을 맺어 마련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박정주 도 해양수산국장이 '충남도의 수산정책'에 대해 강의했으며, 한서대 국제수산과학연구원장 이정열 교수가 교육 과정을 설명했다.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2

이번에 선발한 교육생은 어선·양식 어업인 등 총 25명으로, 이 중 7명은 여성 어업인이다. 양성 과정은 오는 8월 1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목요일 7~8시간씩 총 106시간에 걸쳐 도 수산자원연구소와 한서대, 수산 관련 현장 등에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국내·외 수산업 여건 변화의 능동적 대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학적인 어업경영기술, 신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체험 등이 다. 특히 3박 4일 일정의 중국 수산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 견학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 등 현장 교육과 이론 교육을 병행 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2

분자마커로 고당도 딸기 개발

당도·경도 개선에 활용 어린 식물체서 유전자 추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특화작목 딸기의 신품종 개발 촉진을 위해 품질 관련 분자마커 개발에 나선다 고 지난 8일 밝혔다. 기술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고당도, 쉽게 무르지 않는 단단한 과육 등을 갖춘 새로운 딸기 품종 육성을 분자마커를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딸기는 염색체수가 56개인 8배체로, 유전적 조성이 매우 복잡해 품종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순계(유전적 조성이 균일한 계통)를 만들기 어렵고, 개발 기간도 7년 이상 필요하다. 이러한 딸기 품종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분자마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아주 어린 식물체로부터 유전자를 추출·분석하는 분자마커 방식은 열매가 달릴 때까지 키워보지 않고도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를 찾을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 합인기 생명공학팀장은 "당도와 경도 등 품질과 관련된 분자마커를 우선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개화시기, 병저항성 등 우수 딸기를 조기에 선발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매향, 설향, 킹스베리 등 새로운 품종 개발과 함께 건딸기 제조법도 개발·보급하며 도내 딸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041-635-6086

I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②

'오약손' 과 '오여손' - '윈손'

차령 이남에선 '오약손' 충남 북부지역은 '오여손'

얼마 전 논산문화원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곳에는 '논산지역의 언어'라는 책이 소개되어 있었다. 2017년, 논산 지역의 어르신 네 분을 찾아 조사 발굴한 논산 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평생 논산에서 살아온 분들의 삶의 단편들이 웃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곳에서 '오약손'이란 말을 만났다. 그리 낯설지는 않았지만 충남 북부 지역에서는 쓰는 이가 거의 없는 말이었다. "산질이 오약짜이루만 빙빙 둘러져(산길에 왼쪽으로만 빙빙 산을 두르고 있어)" "그 사람은 오약손을 쓴게 낫두 오여났을 쓴 거(그 사람은 윈손을 쓰니까 낫도 윈손잡이 낫을 쓴 거야)" '오약손'은 대체로 차령산맥과 금강 이남 지역에서 쓰는 말이다. 쓰임

은 대략 위 문장과 같다. 이에 비해 충남 북부 지역에서는 '오여손'을 주로 쓴다. 충남지역에서는 '윈'을 '오야'나 '오여'라 한다. '오야'는 차령 이남에서, '오여'는 차령 이북 지역에서 주로 쓰는 말이다. 이 두 말은 '바르지 않다'는 뜻의 '외'에서 나온 말이다. 이 '외'에 조사 '의'가 붙어 '오야', '오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약손'은 '오야+손'이고, 바른손이 아니라는 말이다.

충남 북부말과 남부말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혀'와 '하'의 쓰임이다. 충남 북부에서 '가는 일을 참 잘 혀'라고 한다면 남부에서는 '가는 일을 참 잘하'가 나오는 식이다. 물론 '혀, 하'는 모두 충남 전역에서 쓰이지만, 남부에서 많이 쓰이는 '하'가 북부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야손, 오약손'은 남부에서, '오여손, 오옛손'은 북부에서 주로 쓰인다. "바른손을 다쳐서래미 오여손이루 일 할라니께 이응 스톨러(오른손을 다쳐서 윈손으로 일 하러니까 영 서틀러)"

위 문장은 충남 북부에서 주로 쓰는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 세상이 더 빠르게 바뀐다. 나는 그대로 있고 싶은데 주변이 마구 떠민다. 어릴 적 추억과 삶이 녹아든 충청말을 쓰고 싶은데 세상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충청의 오약손도 오여손도 우약스런 '윈손'을 만나 세월의 추억 속에 몸을 숨겼다. ●이명재 예산군 내포제 시조 보존회 회장





현대제철 등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적발

위반 14건, 고발·조업정지 조치
과태료 총 1900만원 부과

현대오일, 방지시설 방치 벌금
점검인력 늘리고 제도개선 강화

충남도는 지난 2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별 점검 결과, 현대제철은 제2고

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주공정에서 기타로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제2고로 용광로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연주공정 기타로 배출시설 미신고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현대제철 고체입자

상물질 저장시설 등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건, 코크스로 등에서 ▲배출시설 오염물질 누출 방치 행위 3건을 찾아냈으며,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서는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도 적발했다. 이들 9개 위반사항에 대해 도는 경고와 함께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한 점검에서는 신기·내리기 공정 살수시설 및 슬러그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2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달 17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은 중앙정부가 나서야겠지만,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전과 041-635-4441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찾아 위반사항을 점검 중인 모습



김용찬 행정부지사(사진 가운데)가 우수 표어 시상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살예방 표어 공모전 우수작 9편 선정

최우수, 나영호 소방사 영예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활용”

충남도는 지난 3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2019 생명사랑주간 자살예방 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3월 말부터 보름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생명의 소중함, 생명사랑, 생명존중 인식 확산, 삶의 의미 등을 주제로 총 1323점의 표어가 접수됐다. 도는 1·2차 심사, 도청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6편 등 총 9편을 우수 표어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당진소방서 소

속 나영호 소방사가 제출한 ‘제가 들 어줄게요. 당신의 말도, 당신의 집도’가 안았다.

우수상은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인 1393을 활용한 ‘일(1)어나요 삶(3)을 향해 구(9)해줘요 삶(3)을 위해’와 ‘작은 관심의 두드림, 커지는 생명사랑의 울림’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따뜻한 말 한마디! 생명을 지키는 작은 배려!’, ‘당신의 관심, END를 AND로 바꿉니다!’ 등 6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한 표어는 자살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전시·행사 등에 활용하며, 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4

충남도, 택시요금 다음 달부터 인상

기본요금 2800원→3300원

거리 150m→131m당 100원

심야·시계 외 할증 현행 유지

충남도 내 택시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른다. 지난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이다.

도는 최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간 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이웃 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

인상한 택시요금을 세부적으로 보

면,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2km 이하 탑승 시 내는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17.86%) 올랐다. 거리요금은 현행 150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과 심야, 시계 외 할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1km 당 요금은 기존보다 17.13% 오를 것으로 계산됐다. 도는 또 향후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대형택시(3km 기준 기본요금 5000원)와 소형택시(2km 기준 기본요금 2200원)에 대한 운임도 조정했다.

이번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

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택시 운임·요금 결정 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정 요율 범위 내에서 요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은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와 부품비, 차량 구입비,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정책과 041-635-4564

‘도시재생 뉴딜’ 선정 행정력 집중

예산군·공주시 우수사례 공유

실현 가능성·효과 극대화 집중

충남도는 지난 7일 공주에서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사전준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하반기에 도내에서 3곳 이상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참신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상반기 선정·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또 예산군의 ‘함께 이어가는 물(H2O) 공동체 배다리 마을’, 공주시의 ‘제민천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골목공동체’ 등 우수

사례에 대한 공동 학습을 통해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공주시 우수사례 사업 대상지로 이동해 직접 현장을 살펴봤다.

도 건축도시과 운영산 과장은 “국토부의 상반기 선정 과정을 보면 사업의 준비 정도, 실현가능성,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며 “만반의 준비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도시과 041-635-4660

축산농가 역량 강화로 ‘구제역 차단’

10일부터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축산농가 1000호 대상

충남도는 지난 10일부터 도내 소·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순회교육을 3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본부 공동주관으로 농가의 ‘방역역량’과 ‘책임방역 의식’을 강화

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제역인 일정은 ▲홍성 홍주문화회관(5월 10일) ▲예산 농업기술원(6월 18일) ▲논산 농업기술센터(6월 25일) 등이다.

교육은 정부와 도의 구제역방역 정책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을 조영보 도 구제역방역팀장이 강의한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주요 질병에 대

한 교육은 민간전문가인 전남대 수의과대학 서국현 교수가 강의를 맡아 진행한다.

박병희 도 농업축산국장은 “앞으로도 방역주체별 맞춤형 방역교육 기회를 확대해 방역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정부의 방역정책과 가축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축산농가의 교육 기회 제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축산농가 순회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1

‘충남산 국화 5품종’ 일본 수출

5~12월 총 16만본 연중 출하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화가 올해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남국화수출연구회(회장 황선준)는 지난 2일 도내에서 재배한 국화 5000본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이번에 수출한 국화는 에스루비와 에스홀릭, 퍼팩트, 펄키스타, 시어화이트 등 5품종이다. 절화 수명이 길고 물 빨림이 우수한 퍼팩트와 신장성이 우수한 시어화이트는 하얀색 꽃이며, 특히 시어화이트는 꽃 크기가 6.5cm로 큰 편이어서 수출에 적합한 품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온기 개화가 용이한 에스루비는 자주색 꽃으로 연중 생산 가능하다. 펄키스타와 에스홀릭은 황색 꽃

꽃으로 각각 고온기, 저온기에 개화가 용이한 게 장점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종묘 생산 전문업체를 통해 우량묘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출하는 국화는 예산·당진지역 등 도내 22개 농가에서 재배했다.

충남국화수출연구회는 화훼 전문수출업체를 통해 5~12월 매주 5000본 씩 연간 16만 본을 일본 업체로 수출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중 수출을 계기로 일본시장에서 충남산 품종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농가 소득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20년에는 200만 본을 달성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041-635-6404

만화로 보는 세계 인권선언 <30>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자유 권리 자유 권리

70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전통 한옥 체험하고 재래식 장맛도 보고 '일석이조'

이제는 농촌융복합산업이다

⑦천안 한옥마을

한옥 펜션 고풍스러움 물론
직접 담근 된장·고추장 인기
“질 좋은 재료와 물이 비결”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촌숙박이 최근 들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열악한 기반시설과 미흡한 프로그램으로 이용객이 많지 않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레저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천안 한옥마을(대표 안황준)은 도심과 멀지 않은 천안 목천읍에 위치한 한옥펜션단지다. 천안에서 보기 드문 한적한 산기슭에 위치해 있어 호젓한 느낌이 인상적인 곳이다.

3000여 평의 공간에 크고 작은 한옥 4채가 보기 좋게 들어서 있는데 이 중 2채가 숙박시설, 한 곳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동시 투숙이 가능한 규모인데, 한옥 체험을 원하는 가족들이나 단체 워크숍 장소로 인기가 높다.

상호가 '한옥마을'이라 한옥체험을 먼저 떠올리지만 한옥마을에 유명세를 안겨준 것은 다름 아닌 전통장류다.

안 대표가 직접 담그는 고추장과 된장, 간장



안황준 대표가 자신이 직접 담근 된장을 들여보이고 있다.

등은 지난해 5달 동안만 3000만원 어치가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량 방문, 택배로만 판매됐는데 작년 7월에 농업회사법인 등록을 마친 신생업체치고는 비교적 높은 실적이다. 안 대표의 손맛이 입소문이 탄 것인데 저력은 지난 10년 간의 노력에 있었다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장을 담그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천안 시내에서 하던 자동차정비업소를 접고 목천에 한옥을 지으면서부터 였지요. 언젠가 나이가 들면 한적한 곳에서 장을 담그며 살아야겠다, 늘 생각해왔거든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리고 이

웃 할머니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장맛이 갈수록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대표는 한옥마을 장맛의 비결로 질 좋은 재료와 적합한 숙성 등을 꼽았다. 일례로 된장의 경우, 콩은 천안에서 수확한 재래종 백태를 고집하고 소금은 전북 부안의 천일염을 쓴다. 물도 그냥 물이 아니다. 한옥마을의 우물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퍼갔다는 '약수'로 유명하다.

콩은 반드시 가마솥에서 삶는다. 가마솥밥이 일반 전기밥솥보다 풍미가 진하듯, 콩을 삶는 것 역시 같은 원리라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발효실이 따로 있어서 온도와 습도를 적절

히 맞추고 있어요. 재료도 재료지만 집집마다 장맛이 다 다른 이유가 발효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발효가 아주 잘된 메주는 김밥은 빛을 띠는 데 저희 집 된장이 조금 어두운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장을 담그면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곤 했는데 나중에는 주문이 밀려들어와 결국 사업으로까지 확장하게 됐다고. 이 대표가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간장을 비롯해 현미식초, 오미자원액 등은 한옥마을 내 카페 한 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펜션관리와 장류 판매로 늘 분주한 안 대표에게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다. 전원생활을 즐기며 시작한 소일거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다.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고. 하지만 무리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싶지는 않다는 게 안 대표의 생각이다. 수익을 쫓아 과도하게 규모를 늘릴 경우 기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저 말고도 전통장류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매우 많아요. 그 많은 제품들 중에서 저만의 장맛을 지키려면 결국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규모를 늘리기 보단 좋은 재료를 써서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싶어요. 아직은 초창기이고 혼자 하려다 보니 힘든 점도 있지만 장맛과 공간을 아름답게 잘 가꾸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김혜동 khdt226@korea.kr

'충남 강소특구' 지정 국민적 공감대 확산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지구
스마트모빌리티 특구 조성 예정

충남도가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R&D) 집적지구를 '충남 강소연구개발 특구' (이하 강소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도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충남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도의 의지를 드높이고, 지역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충남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소특구는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연구개발(R&D) 특구 모델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비 지원 ▲개발행위 의제처리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양승조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충남 강소특구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첨단 제조업과 국가 기간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충남 강소특구가 성공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강소특구는 천안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선정하고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등을 배후 공간으로 구축해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분야에 특화된 특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미래성장과 041-635-3956



지난 9일 양승조 지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충남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사업 2건, 국비 160억 원 확보

재활헬스케어 산업 100억

융합 스마트센서 산업 60억

3년간 376억 투입해 기반 다져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에 '바이오 기반 활용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다각화사업'과 '융합형 스마트센서 모듈 고기능·고안전 기반구축 사업'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3년간 각각 100억 원, 60억 원 등 총 16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다각화 사업은 지역특화자원인 온천과 연계한 재활헬스케어 산업의 '시험평가·인증의 실증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디바이스, 제품, 서비스 안정성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 191종의 연구장비를 구비한 실증센터를 구축해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융합형 스마트센서 모듈 고기능·고

안전 기반구축사업은 미래차용 핵심 융합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 역량강화로 고부가가치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6억 원을 투입, 표준화 시스템구축, 장비확충, 기술지원, 인력양성을 하게 된다.

도는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산업육성과 041-635-3931·3932

'제26회 기업인대상' 후보 모집

6월 21일까지 시·군 접수

충남도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제26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 업체 선정을 위해 후보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대상은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경영 능력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으로, 매년 선정·표창 중이다.

추천 대상은 도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등록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공이 있는 기관 및 관련 단체 임직원이다. 후보 접수는 추천서와 사업자등록증, 기업체 실태 평가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

재 시·군 기업 지원 부서에 다음달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기업 건설도와 경영·기술·일자리·수출·지역사회 기여 및 도정 목표 부합·현지평가 등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오는 9월 수상자를 최종 선정해 10월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 기업에 종합대상 탐을, 경영·기술·장수·창업 등 4개 기업에는 부문별 대상 탐을, 우수기업인 5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인상 탐을 각각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 또는 각 시·군 기업 지원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38

유망 중소기업 “어디 숨었나?”

6월 18일까지 발굴·모집 중

충남도는 다음달 18일까지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은 도내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공장을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다. 세부적인 신청 기준은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이 우수한 기업, 기술혁신 노력이 현저하고 시책 참여도가 높은 기업, 기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등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할 계획이다.

시·군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도에 추천하면, 도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 후 오는 9월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8일까지이며, 접수처는 공장이 위치한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6년 동안 ▲도 기업인대상 선정 시 기술분야 점수 우대 ▲중소기업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소상공기업과나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39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지역에서 책임진다

충남도 먹거리 종합전략

충남도는 지난 3월 도내 농축식품의 순환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충남도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먹거리 종합전략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유통부터 소비까지 순환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중소·고령농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확보하고 결식 아동과 독거노인 등 먹거리 약자의 인권증진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먹거리 전략이다. 충남도 먹거리 종합전략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전략 및 목표 등을 소개한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도민 먹거리 인권 보장으로 '복지수도 충남' 실현 한 발 더

이번 먹거리 종합전략은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먹거리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수도 충남에 걸맞은 먹거리 정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더 행복한 충남'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표로 먹거리 환경 증진을 통한 인권 보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먹거리 정책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량적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도의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30% 이상은 63만 명의 먹거리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해 나간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도는 4대 전략 목표에 따른 세부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먼저 ▲생산 및 가공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보호를, ▲유통 및 소비 부문에서는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을, ▲복지 및 영양 부문에서는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교육 및 순환 부문에서는 따뜻한 먹거리 공동체 육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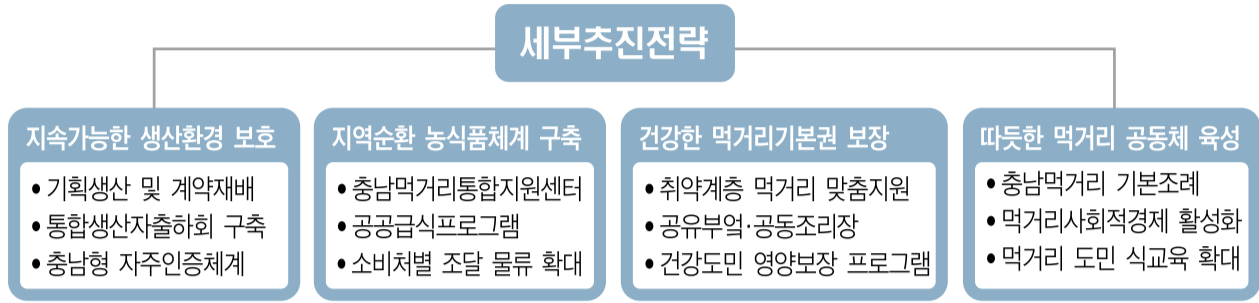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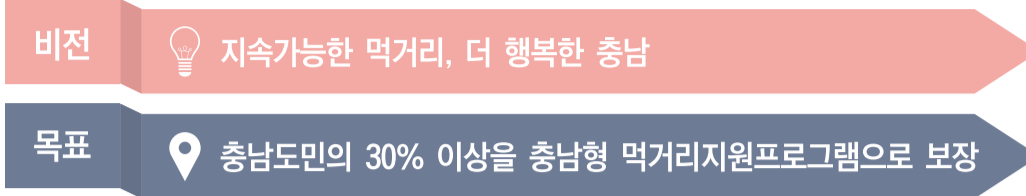
이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는 기획생산 및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통합생산자출회 구축해 충남형 자주인증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도내 생산 먹거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공급식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별 조달 물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맞춤형 지원은 물론, 공유부엌·공동조리장 등을 마련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영양을 지킨다. 끝으로 충남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먹거리 순환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민간 투트랙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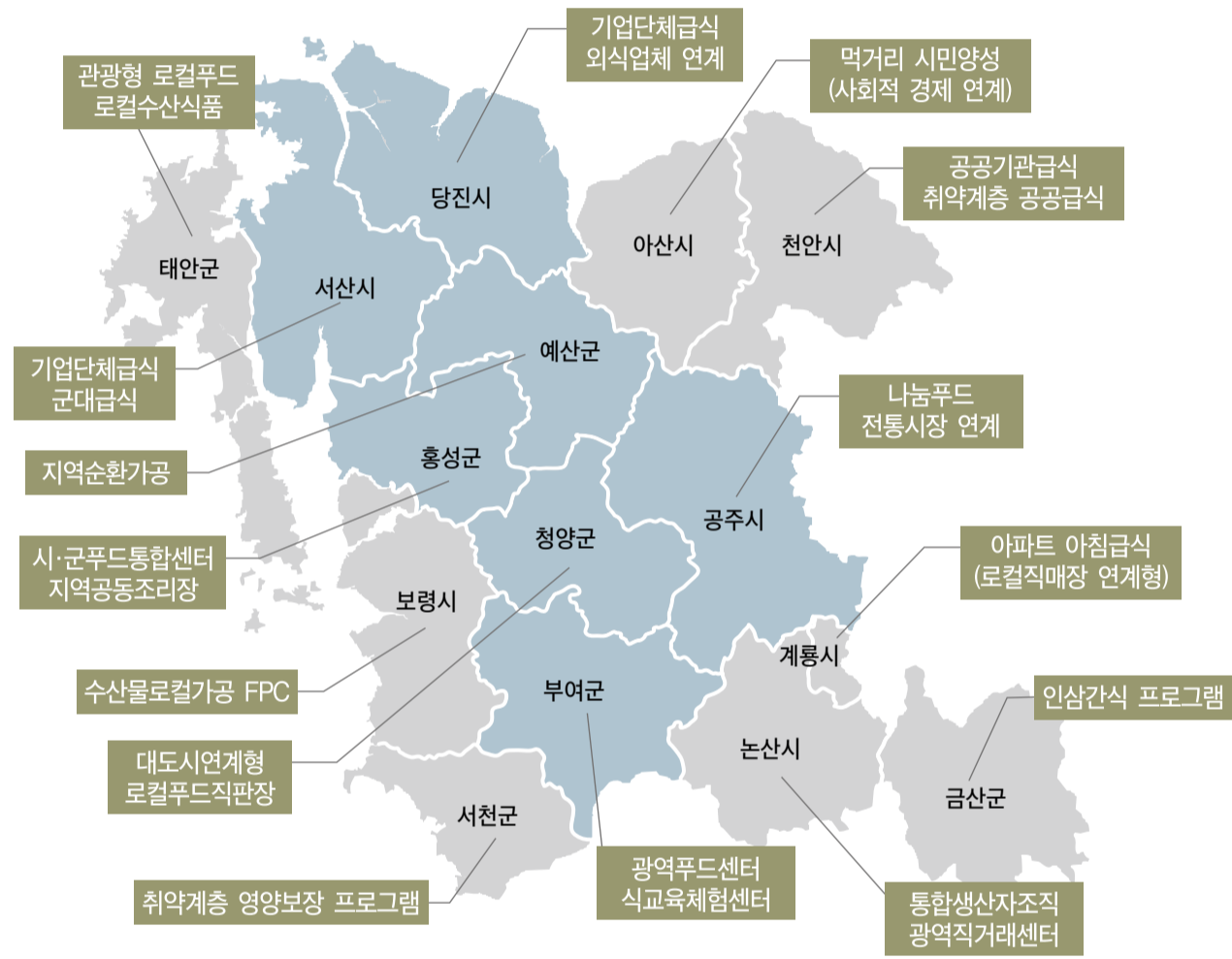
먹거리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

2023년까지 3000억 규모 시장 확대

충남도는 이번 먹거리정책을 통해 단순히 전통적인 푸드시스템을 개선하



시·군별 추진 전략



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를 통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까지를 목표로 한다. 즉 농업업 분야에 환경성·건강성·순환성 등의 공익적·사회적 가치 체계를 접목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3년까지 3000억 규모의 충남 먹거리시장 확대를 위해 투트랙(2Track) 방식의 먹거리정책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적소비 영역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자본으로부터의 시장 보호

를 위하여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적 먹거리 소비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민간소비 부문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의 지역 순환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형 직거래

시장을 확대 지원한다.

2017년 기준 충남 먹거리시장 규모는 1968억 원으로, 지역 농축산물 생산액 대비 4% 수준에 그친다. 도는 시장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역급식을 포괄하는 공적 먹거리 영역과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외식·가공업체, 전통시장 등의 사적 먹거리 영역의 소비를 조직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적 먹거리 영역에서는 환경의무 준수, 공적 조달과 소비연결, 순환성 확보 등을 추진하고, 사적 먹거리 영역에서는 충남 소비자조직화와 다양한 지역 유통·가공시장 연계망을 구축해 나간다.

또한 도는 영세고령농 등의 취약 생산자를 보호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체계를 구축·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소비 및 유통 측면에서 공적 먹거리 보장프로그램을 통해 1일 평균 56만 명을, 소비자 먹거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일 평균 11만 명을 먹거리 종합전략 소비망으로 연계함으로써 도민 30% 이상의 수혜를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관거버넌스 등 전담조직 신설 조례 제정·지역별 특화정책 등 6월 3일 '먹거리 2030 비전' 선포

도는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먹거리 인권 증진을 위해 먹거리 종합전략을 토대로 연차별 실행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도지사 직속 먹거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참여형 위원공모제도를 도입하고, 행정부지사 소관의 먹거리정책관 제도를 신설해 각 부서별로 이뤄지고 있는 먹거리 연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에 더해 충남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출연형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민간 전문위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충남 먹거리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정비를 위해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조례'와 '충청남도 지역식품순환체계를 통한 도민 먹거리 인권보장 기본 조례'를 각각 제정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군 공공급식의 확대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생활교육 체험관 조성을 통해 연령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달 3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및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먹거리 복지수도 충남'의 미래비전을 선포함으로써 이번 계획의 추진의지를 천명한다. 또한 비전 실현을 위한 도와 시·군간 협약을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양승조 지사는 "이미 유럽연합(EU) 등 140여개 국가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했다"며 "충남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모든 도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먹거리 정책을 통한 '복지수도 충남'의 구현 의지를 피력했다.

/손유진 syj0319@korea.kr

충남형 농업직불제, 2019 '농업환경실천사업'

질소비료 감소 등 과제 이행
농가별 45만 원 지원금 지급
도내 400개 마을 선정 지원



충남도가 올해도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 농업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지속한다고 전했다.

농업환경실천사업은 질소질 비료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 농산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적극적 토양관리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자율실천 사업이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맞춤형비료지원사업' 및 '벼 경영안정직불금지원사업'을 통합하며 마련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농업환경 개선 사항을 자율실천하기로 읍면동장과 마을이 협약한 후, 농가별 실천사항

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환경 개선사항 자율실천 의지가 있는 도내 마을 중 신청·지원금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다. 지원금은 농가별로 45만 원씩 지급되며, ▲2018년 농업환경실천사업 참여농가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수령농가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선정 농가는 제외된다.

자율실천사항은 질소질 비료의 적정량 시비(6kg/200평 또는 9kg/10a),

벼짚 환원(3년 1주기, 수확 후 벼짚 절단 환원) 등이다.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이면 토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비료 구입 및 시비에 드는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벼짚을 환원하면 지력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벼의 증수 효과가 뛰어나 10ha당 7만 원 이상의 경제성을 띄게 된다.

참여마을 중 벼짚환원 실적이 높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우수마을 400곳은 별도로 선정해 마을당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질소질 비료 감축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는 표창과 농산사업비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농업환경실천사업에 대한 문의와 신청은 각 시·군 농정부서 및 도 식량원예과(041-635-4048)로 하면 된다. /손유진 syj0319@korea.kr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청신호' 커졌다

B/C값 1.885, 사업성 인정

R&D 기획 전문기관 발돋움 기대

충남지역 스마트혁신성장을 수행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가칭)의 설립에 청신호가 커졌다.

도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결과,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885로 높게 나타난 덕분에이다.

충남도는 지난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용찬 행정부지사, 미래산업국장,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도내 혁신역량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전담조직을 구성, 신성장동력발굴 및 스마트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충남은 기업 주도로 연구·개발(R&D) 총량은 상위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 연구개발 투자 등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 진흥원이 설립되면 도내 자생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R&D 기획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천안아산 KTX역 R&D 집적지 구심점 역할도 병행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와 시·군의 총예산 대비 현재의 0.56%에서 전국평균 수준인 0.75%까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경우 B/C 값은 1.885로 나왔다. 통상적인 타당성 검토에서 B/C값이 1 이상이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5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4조 668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4481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2664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이르면 금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얻게 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도의 스마트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성장과 041-635-3959



전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광복 교수(둘째 줄 왼쪽서 네 번째)

이광복 교수, 소방경연 최우수

11개 소방교육기관, 열띤 경쟁 '급류구조 이해' 우수성 인정

충청소방학교 이광복 교수가 지난 8일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24회 전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에서 강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는 전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교수요원을 발굴하기 위해 1996년 이후 24번째로 개최됐다.

총 11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충청소방학교 이광복 교수는 '급

류구조의 이해 리버리딩(River Reading)'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강의 전개방법과 기술부분 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광복 교수는 "동료들의 지원과 격려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수가 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이광복 교수는 오는 6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제37회 공공HRD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된다.

●화재대책과 041-635-5588



어린이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

충남도는 지난 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을 열었다. 양승조 지사와 아동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함께 참여해 매직콘서트, 코미디퍼포먼스 등의 공연을 즐기는 자리가 됐다.

●저출산보건복지실 041-635-4547

청양·예산에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선다

저소득층 대상 복합형 임대주택 총 220가구, 2021년 하반기 입주

충남도의 청양·예산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복지시설·물리치료실·시니어카페·텃밭·소규모 영화관 등을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건강관리·생활 지원·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며, 입주민 포함 지역주민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저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며, 상층부는 임대주택으로 분양한다.

임대주택 내부는 고령자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해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미닫이 욕실문, 욕실·복도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

바닥 등을 설치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위치는 청양군 교월리 일원(1700㎡)과 예산군 주교리 일원(1500㎡)으로, 각각 100가구와 120가구가 조성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올해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오는 2020년 상반기 사업에 착수해 2021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노인친화도시를 조성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주거보장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과 041-635-4221

'장애인 생산품' 판촉 행사 개최

도내 직업재활시설 13곳 참가 카네이션·식품류 등 홍보·판매

충남도는 지난 3일, 7일 양일간 도청 지하 1층에서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기반이 되는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 마련했다.

9개 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2곳과 도 희망카페 종사자 및 근로 장애인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

번 행사에서는 제과제빵, 조미김 등 식품과 화훼, 공산품 등을 홍보·판매했다.

참가 작업장은 ▲천안 장애인보호 작업장, 희망일터 ▲공주 명주원 ▲보령 정심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아산 꿈꾸는 나무 ▲당진 하나루 작업장, 민들레일터 ▲금산 보호작업장 ▲청양 보호작업장 ▲홍성 보호작업장 ▲태안 태현식품 ▲도 희망카페 등 13곳이다.

한편 이번 행사 수익금 전액은 각 시설의 근로 장애인 임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과 041-635-2632

간추린 도정

대둔산, 무단방치 물건 단속

충남도 대둔산도립공원사무소는 행락철을 맞아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상행위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도립공원 내 무단방치 물건 등을 제거한다. 번 도립공원 내 무단방치 물건 제거는 '자연공원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일원(하천·계곡부 1.2km)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제거 대상은 자연공원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 등이다. 특히 불법취사,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 셋길출입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도립공원과 041-635-6971

사회적경제 시·군 간담회 개최

충남도는 지난 7일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추진체

계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양군이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역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도는 이번 시·군 간담회에서 수립한 지자체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며,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예정이다.

●경제정책과 041-635-3314

충남 청소년 리더 출범

충청남도도가 주최하고 충남청소년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촉식이 지난 10일 충청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청소년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다. 도내에서는 총

21명의 청소년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을 비롯한 청소년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모니터링, 참여기구 연합·교류활동 등 도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도에 제안하고 청소년활동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재)충남청소년진흥원 041-562-9003



37관 공동, 첫 지역사 교재 발간

김석환 흥성군수, 주도연 흥성교육장, 이종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지난 7일 (내포 역사의 중심, 흥성) 출판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포 역사의 중심, 흥성)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충남 지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도내

시·군과 협력하여 발간한 첫 번째 지역사 교재다. 도내 시·군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지역사 교재는 흥성군을 시작으로 태안군,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교재는 역사적 내용을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삽화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21개 주제별로 흥성군 역사의 흐름과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이 도서를 흥성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배포해 지역사 수업 부교재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041-840-5045

재난안전 정책 방향 논의'

충남도는 지난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안전소방분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2019년 재난안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자문위원(위원장 김겸훈) 9명과 재난안전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과 2019년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설명과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도민안전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도 재난역량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전정책과 041-635-56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나서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사장 양승조, 이하 재단)은 지난 9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과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사장 김용찬, 이하 진흥원)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은 진흥원이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성공적 사회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재능기움·글로벌탐방·충남뿌리내림·학자금대출상환 장학금 등 주요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충남인재육성재단 041-635-9805-6



영화·드라마 빛낼 도내 명소 8곳 소문낸다

마량리 동백숲·공산성 일대 등 숨은 명소 곳곳 팸투어 실시

충남도는 지난 9~10일 서천·부여·공주 일원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초청 팸투어는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해 도내 주요 명소와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방문·소개하는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번 팸투어는 충남영상위원회,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개별 영상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을 초청해 도내 관광지 8곳을 방문 및 탐방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팸투어 첫날인 지난 9일, 참가자들은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판교마을 및 국내 최대 규모 생태 박물관 국립생태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을 방문한 영상산업관계자 1차 팸투어 참가자들의 모습

원을 둘러보고, 영화 '극한직업' 촬영지인 장항읍과 장항항을 방문했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부여 성흥산 사랑나무, 백제문화단지를 탐방한 뒤 공주 송산리 고분군, 공산성으로 이동해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살펴봤다. 특히 공산성은 금강과 맞닿아 있어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운치가 있어 참가자들

의 눈길을 끌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방문한 도내 관광 명소들과 이동하며 둘러본 장소들 모두 영화·드라마에서 매력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정책과 041-635-3823

대학 축제 군민 모두의 잔치로

'벽천해오름제' 지역 축제로 대학-지역 상생축제모델 '기대'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의 대표 축제인 '벽천해오름제'가 올해부터 청양군민 모두를 위한 지역 축제로 확대·개최된다. 도립대는 청양군과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등과 손잡고 대학 축제인 '제22회 벽천해오름제'를 청양군

민 모두의 축제로 승격·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양군민 모두의 축제로 열리는 이번 '벽천해오름제'는 충남도립대학교 주최, 청양군 후원, 총학생회 및 연예예술인협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16일 '청양 군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주제로 대학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축제는 오후 5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며, 유명 가수들이

개회식 무대와 본 무대의 흥을 달군다. 또한 경품 추첨을 비롯해 장기 자랑, 레크리에이션 등 신나는 참여 무대가 마련됐으며, 학생들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다양한 푸드트럭 등이 참여해 풍성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허재영 총장은 "'벽천해오름제'가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축제 문화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청양에 활력을 주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24

교류·마케팅 확대로 中·日 관광객 부른다

충남도는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 중이다.

지난 10~11일에는 중국과의 스포츠·민간 교류와 도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韓·中 그라운드골프 친선대회를 마련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도내 관광지를 소개했다. 도는 스포츠와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12~15일에는 보령시·태

안군과 함께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를 방문해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 마케팅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증가세에 있는 방한 일본 관광객 수요를 도내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관광 명소와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추진됐다. ●관광진흥과 041-635-2445·3894

남이네 가족

김병수 "충남 시내버스 1116대 무료와이파이 '뽕뽕' 터진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

- 올 상반기 천안·청양 시내버스 281대 설치
- 하반기 835대 설치
- 충남 주요 관광지 1380곳 설치 완료

※협업 '남이네 가족'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 기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서들의 서재

《정재승 저, 어크로스, 2018》

'과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렵고 복잡한 것'이란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만 부가 판매되어 지난 20년간 국내 작가의 과학책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린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이후 17년 만의 출간으로 출간 이전부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책이 있다. 정재승 교수의 《열두 발자국》이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

바로 그 책이다.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인 정재승 교수는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의 저자로 이미 익숙한 저자다. 그는 교양예능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기한 잡학사전', '차이나는 클래스' 등의 출연을 통해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친근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과학의 영역을 대중문화와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한 대중 과학자이다. 이 책은 지난 10년 동안 저자가 기업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온 뇌과학 강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강연 12편을 묶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 또한 추가해서 새롭게 구성하였다. 제목 '열두 발자국'은 '인간이라는 경이로운 미지의 숲을 탐구하면서 과학자들이 내디딘 열두 발자국'을 줄인 것으로,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의 숲으로 여섯 발자국'을 떠올렸다고 한다. 저자는 의사결정, 창의성, 놀이, 결핍, 습관, 미신, 결정장애 등과 관련하여 과학의 여러 관점과 이야기를 소개한다.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쓸 수 있겠어요?",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왜 자신이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결핍과 대면할 용기가 있나요?" 당연한 듯 혹은 낯선 듯 보이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가 이끄는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여태 가보지 않은 세상에서 낯선 탐험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소이
충남도의회
의정자료실 사서



문화행사



연극 장수상회

■일시 : 5월 21일 오후 7시30분
 ■평생 독심 하나로 살아온 까칠한 노신사 '김성철'과 소녀 감성의 꽃집 여인 '임금님'을 중심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김성철 역에는 드라마, 영화, 예능까지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국민 할배 '신구'가, 임금님역에는 스크린과 무대를 압도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 온 배우 '손숙'이 분했다.
 ■장소 : 금산 다락원
 ■문의 : 041-750-4415

도불60주년 이응노·박인경展

■일시 : ~5월 26일
 ■세계적인 거장 이응노 화백과 박인경 화백의 도불 60주년을 맞이하여 열

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총 73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일제 치하의 굴욕, 동족상잔 전쟁의 참상, 남북 분단의 쓰라림 등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던 두 예술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장소 : 홍성군 이응노생가기념관
 ■문의 : 041-630-9232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일시 : ~8월 25일
 ■서울에서 20만8000명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스페인 화가 '에바 알머슨'의 전시가 천안에 왔다. 서울 전시에서는 대한민국 '서울'을 주제로 한 2018년도 최신파들이 최초로 공개되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천안'을 주제로 한 작품과 함께 2019년 최신파를 새롭게 선보인다.
 ■장소 : 천안 예술의전당 미술관

■문의 : 070-4800-9301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일시 : 5월 23일
 ■'스윙'은 국립현대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로서 해설이 있는 무용으로 진행된다. 'Sing Sing Sing' 등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스윙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무용수들의 춤, 화려한 쇼조명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자.
 ■장소 :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 041-634-0021



충남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일시 : 5월 23일
 ■따스한 햇살이 눈부신 5월, 독일을 산책하는 듯한 감성에 빠져보자.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지휘자 윤승업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마지막 협주곡 '글

라리넷 협주곡 A장조',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9번 C장조 그레이트' 등을 선보인다.
 ■장소 :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문의 : 041-856-0778



음악동화 오페라의 요정들

■일시 : 5월 24일
 ■미디어아트 영상과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음악동화 오페라요정들. 음악요정들이 살고 있는 오페라 극장으로 라라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여행을 떠나보자. 명작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음악을 통해 자녀들의 음악 감성을 키우는 공연으로 마련됐다.
 ■장소 : 아산시 평생학습관
 ■문의 : 041-534-2634



거미 콘서트

■일시 : 5월 26일
 ■국내 발라드계의 여제, 거미가 천안에 온다. 허스키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거미 특유의 음성으로 휴일 밤을 물들여보자.
 ■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 1588-0766

마당극 '동백꽃'

■일시 : 5월 29일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한국형 음악극이 탄생했다. 마당극 '동백꽃'은 강원도 산골 주민들의 명랑로맨스 스토리다. 아기자기한 드럼, 북, 팽과리 등 여러 가지



악기 장단에 맞춰 '아리랑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보자.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문의 : 041-350-2911



해설이 있는 콘서트 '고래야'

■일시 : 5월 29일
 ■고래야는 '옛고(古) 올래(來) 끌어당길야(惹)'를 써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는 그룹이다. 전통악기 연주자 3명, 퍼커션 1명, 보컬 1명으로 구성된 5인조로 구성된 그룹으로 퓨전국악 스타일의 민요와 창작곡을 연주한다.
 ■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문의 : 1566-0155



싸가지 놀부전

■일시 : 6월 8일
 ■배우 윤문식이 출연하는 흥부와 놀부의 유쾌상쾌통쾌한 이야기. 흔히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전을 시종일관 신나고 유쾌하게 재해석했다.
 ■장소 : 예산군문예회관
 ■문의 : 041-339-821

얼굴 속의 얼굴...이중성의 충격

변상섭의 그림읽기

김동유·마릴린몬로

김동유(1965-)의 픽셀 모자이크 회화 기법. 작가가 창안한 독특한 회화 기법이다. 수많은 작은 이미지(픽셀)들이 모여 큰 이미지의 작품이 되는 새로운 작업이다. 픽셀도 인물이고, 픽셀이 모여 또 다른 큰 형상의 인물화가 된다고 '이중그림'으로도 불린다.

100호 크기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린다. 한마디로 극한의 작업이다. 1000개가 넘는 작은 인물의 집합체에 명암 표현까지 오죽하겠는가. 세심한 손맛이 느껴지지만 작가에게는 '지독한 그리기'의 산고다. 대량생산의 팝아트와 달리 아날로그적인 작업이다. 굳이 음악으로 따지자면 모노가 아니라 스테레오에 가깝다.

'마릴린 먼로와 존 F 케네디', '마릴린과 마오'는 세계적 스타작가 김동유가 있게 한 대표작이다. 먼로인 줄 알고 다가가는 순간 먼로 이미지는 해체되고 수만 가지 표정을 지닌 케네디 얼굴이 튀어나온다. '얼굴 속의 얼굴' 이중그림의 실체다. 먼로는 세계적인 대중스타이자 자본주의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리고 케네디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정치가의 상징 코드다.

서로 다른 저명인사를 오버랩 시켜 권력의 허무함, 흥망성쇠 등 거대한 시대적 담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세포처럼 작은 초상 이미지들이 마치 사진의 픽셀처럼 모여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픽셀 하나하나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체 속에서의 정체성은 무의미 해진다. 그렇다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전체 속에서 다른 이미지로 재탄생하면서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은 설치·미디어 아트가



Marilyn Monroe(John F. Kennedy), 227.3×181.8cm, Oil on canvas, 2010

주류다. 작가는 주류와 일정 거리를 두고 평면을 고집한 끝에 '이중그림'을 내놓았더니 세상은 그를 야방가르드 작가로 평가하더라. 김동유의 이중그림은 설치와 미디어 아트를 뛰어넘는 작업이다.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1000개가 넘는 작은 인물그림이 필요하다. 마치 인쇄된 사진처럼 보이지만 직접 그린 것이다. '손의 마력'과 혼이 담긴 작품이다.

케네디·박정희·김구·유관순·안중근·덩샤오핑·마오쩌둥·리즈 테일러·오드리 헵번·마릴린 먼로 등 즐겨 쓰는 이미지는 동·서양을 관통할뿐더러 동시대와도 거리낌 없이 소통을 한다.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아트의 대가라는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작가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기린아이자 블루칩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유학은 커녕 그 흔한 서울 유학도 마다한 충청도 토종 작가다. 하지만 그 스펙트럼은 지구촌을 관통한다. 작업을 위해 목원대 교수직까지 내놓을 정도로 작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그는 2005년 홍콩 크리스티에서 '마릴린 먼로 VS 마오 주석'이 3억 2000만 원에 낙찰돼 당시 국내작가로는 해외경매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2009년 세계적 미술사이트 '아트 프라이스'는 1945년 이후 작가 중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거래된 작가 100명 중 한국 작가 중 유일하게 5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변상섭 충남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화전리 사면석불 아래 '자운영'

국미나의 꽃이야기

온 산이 푸르다. 오월의 사과밭은 거름냄새도 정겹다. 코스모스가 피어 있던 국도변에는 민들레가 터를 잡았다. 618번 지방도를 따라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에 위치한 화전리 사면석불(보물 제794호)을 만난다. 네분의 부처를 모셨다. 부처의 얼굴이 없다. "얼굴은 어디 갔을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아이의 마음에 는 보인다. 마음이 꽃이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핀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호승 시인의 꽃이 보인다.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40여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 옛 고향을 찾아 과거로의 여행을 떠났던



시간이 풀린다. 어릴 때 보았던 자운영 꽃이 피었다. 공선옥의 글. "나 죽어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그때 우리 아이들도 자운영꽃밭에서 얼굴을 묻고 제 아이들 몰래 울까 모르겠습니까. 제 엄마 자운영 꽃밭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때가 생각나 저희들도 그렇게 울까 모르겠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있다. 꽃구경 오시라고. 꽃이 자듯 구름과 같다고 해서 자운영이라고 한다. 자운영의 꽃말은 '그대의 관대한 사랑'이다.



효(孝) 실천, 인간관계 기본으로 삼아야

내포칼럼



김의영
백석대학교 교수

효는 우리민족의 도덕과 문화를 형성했으며 현재도 우리의 삶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효가 지닌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고유문화를 창달하는 길이다. 전통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사회질서의 뿌리이다. 우리가 효를 교육하고 문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효 교육은 규범교육 이전에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의무관계나 계약관계로서의 인간관계 이전에 인간다운 정서와 관심, 배려에 따른 인간의 만남을 중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첫째, 효 실천을 위한 전제로서 가족 구성원간의 애정과 효를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 강요에 의하거나 남의 이목 때문에 할 수 없이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효의 가치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 윤리적 인간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율성에 의하여 성취될 때 비로소 참된 의의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효도의 순수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부모의 관심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아울러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공경하는 엄격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넷째, 현대의 효 개념은 능률성과 부담감을 주는 효가 되어서는 안되고 자연발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도덕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도덕적 위기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인륜의 근본이 되는 효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바로 그 참뜻과 실천방안을 찾아내어 우리의 삶속에 적용해 나

가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효도를 실천하는 기본자세로는 효를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 보존할 줄 알게 되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비쳐나가야 한다.

여섯째, 효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과 관심을 갖는 태도, 자신에 대한 성실한 관리와 자기 직분에 충실한 태도, 형제간의 우애와 가족 간의 화목, 부모의 소박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 부모께 심려를 끼치지 않는 일, 부모가 기뻐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 따뜻한 대화와 상호이해, 부모님의 사랑과 인사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효 실천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효 정신을 정립하여 실천하도록 하며, 부모가 제반 가정여건을 조성하여 자녀들과 항상 대화하고 접촉하면서 참사랑으로 숭순수범하여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분별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말고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학교와 연계하여 자녀를 교육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가정의 행사에 참여시켜 예절을 따르게 한다. 제시된 항목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항상 실천되도록 격려하고 자각하게 하는 윗사람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대적으로 실천 가능한 효 정신의 본질은 효는 부모자식의 관념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규범이기 이전에 사랑의 체험을 절실히 느끼는 인간관계의 기초로서 아름다운 인간정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전통, 사회발전 이끄는 원동력
효는 우리민족 도덕·문화 형성
생명존중·인성교육으로 다뤄야

합리적인 효정신 재정립 필요
가정 내 부모의 숭순수범이
자녀의 가치관·분별력에 영향

화승총 들고 일본군 무찌른 유일한 전투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 ⑥당진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지금의 당진시는 면천군과 당진현이 합쳐진 곳이다. 당진지방에 동학이 전래된 것은 1880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당진의 동학 전파는 넓은 평야와 수많은 부재지주(不在地主, 토지를 소작인에게 임대해 주고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로 인해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그만큼 당진에서는 부재지주에 의한 착취와 수탈이 일상화되었다는 뜻이다.

합덕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난 것은 1893년 12월 14일의 일로, 합덕농민들이 전 전라병사였던 이정규의 착취와 수탈에 견딜 수 없어 봉기로 맞선 것이다. 이정규의 수탈은 합덕제를 이용해 부당한 수세를 거두는 일은 기본이었고, 합덕제의 얇은 곳을 개간하여 자신이 차지하였다.

심지어는 한 겨울에 농민들을 동원하여 연뿌리를 채취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동학접주 나성되는 스스로 장두가 되어 합덕농민들의 불만을 혈원록으로 작성하여 홍주관아에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정규는 홍주목사에게 연통하여 등장하려 간 농민들을 살해하려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합덕농민들은 그날 밤으로 이정규와 가솔들의 집을 불태우고 항거하였다.

이렇듯 합덕농민봉기의 원인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지 못해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고부봉기와 매우 흡사했다. 그런 의미에서 내포지방 동학농민혁명의 전사적 성격의 농민봉기였다.

면천의 대접주는 이창구였다. 이창구는 당진 일대는 물론 내포지방 전체 동학농민군을 이끈 대접주였다. 이창구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1894년 10월 7일 새벽 내포지방 농민군을 이끌고 오전에 있던 충청수영을 공격하였다. 충청수영은 오늘날 해군 사령부에 해당하는 조선 수군의 사령부였다.

또한 이창구는 당진 송악산을 점령하여 한양으로 향하던 해상 운송을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한양에 공급되던 공세미의 운송이 끊기게 되었고, 외무대신 김윤식은 일본군에게 이창구를 진압해 달라고 애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이창구를 홍주목사 이승우는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창구와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던 홍주목사는 이창구의 애첩을 이용하여 이창구를 체포하였다. 이창구가 잡혀 홍주성으로 압송되자 인근의 유림들이 몰려와 즉시 죽일 것을 요구하였고, 바로 그날로 효수하였다.

당진 승전목은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 이긴 전승지로 유명하다.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지형 조건을 활용한 작전에 있었다. 운산에서 면천으로 향하는 길목인 승전목은 좁은 협곡을 이루고 있어 군사적 요충지로 통했다.

10월 24일 2만 명의 동학농민군은 미리 승전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관군과 일본군 134명을 승전목 협곡으로 유인하여 격퇴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이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물리친 전투는 사실상 승전목 전투가 유일했다. 승전목 전투의 승리로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은 사기가 충천하였고, 이어 벌어진 신례원 관작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당진시동학농민혁명승전목 기념사업회

12년째 신음하는 태안

생생현장리포트



김동이
태안신문 기자

무려 12547kl의 원유를 태안 앞바다에 쏟아내며 검은 재앙이 덮친 지 11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유류 피해민들의 아픔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제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증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미비한 보상을 받은 피해민들은 아직도 검은 악몽을 견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5차까지 가는 용역 끝에 '보상받지 못한 자의 보상'에 관한 기준을 확정하고 피해민 별로 지원규모를 정해놓았지만 아직까지도 해양수산부가 고시를 하지 않고 관망하면서 피해민들의 애만 풀고 있다.

태안군 등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전라도 고창과 진도, 함평 등의 채권신고한 피해민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것을 이유로 고시를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로 들고 있다.

만약 해수부의 고시 이후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피해민 별로 입금되었을 경우 피해민들 간 또 다른 갈등이 일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해수부가 적당한 시기를 틈타 보상을 마무리 지음으로서 책임소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지역사회에서는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갈등요인이 태안지역 사회를 달구고 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삼성지역발전기금이 그것.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미

출연기금을 수탁,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이자를 포함한 1503억원의 태안 배분기금을 수탁했지만 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제동을 건 이들은 삼성지역발전기금의 태안군 수탁을 주장하는 '군민발전기금 일천오백억원 찾기 범군민회'로, 이들은 허베이조합의 태생부터 부정하며 삼성지역발전기금의 태안군 수탁과 운영을 줄곧 주장해 온 이들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3년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을 위한 피해주민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설명회장 단상을 점거하는 거센 저항으로 설명회 자체를 무산시키며 2라운드 싸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들은 여전히 허베이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태안군민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허베이조합은 법원에 채권이 신고된 2만194명만을 조합원 가입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조합원 가입토록 독려하고 있다. 두 단체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양 단체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이 이제는 기름 유출사고가 아닌 번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태안군 등 행정기관과 정치권에서도 해법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다.

이런 식이라면 1500억원이 넘는 지역발전기금을 가져다 놓고도 쓰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우려되고 있다.

좁처럼 해법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법의 판단을 받아 피해민과 조합원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더 이상의 갈등을 막아보는 건 어떨까.

아버지 힘내세요!

변평섭의 사랑방 이야기



전 충남역사문화
연구원장

충남 천안 출신 이봉주 선수는 한 때 한국 마라톤의 상징이었다.

특히 그는 마라톤에서 31세라면 노장층에 속하는 데도 2001년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9분 49초의 기록을 세우며 월계관을 차지했을 때 국민들은 뜨거운 환호성을 터뜨렸다.

정말 대단한 승전보였다.

이봉주 선수는 보스턴 마라톤을 힘겹게 역주하면서 '아버지'의 힘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두 달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슴에 아버지의 모습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 구간중 '심장파열 언덕'이라는 가장 힘든 지점

에 이르렀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 왔다는 것이다. 점점 숨쉬기도 벅차기 시작했으며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 때 이봉주는 두 달 전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아들의 지칠 듯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봉주야, 힘내! 힘내!" 하고 응원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부르며 달리다 보니 옆에 달리는 다른 선수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다. 1등이 된 것에 다시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눈앞에 여뿔듯이 나타났고 그의 머리에는 월계관이 씌어졌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요즘 아버지들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있다. 단지 '아버지의 위기'라든지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핵가족시대 집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아버지의 위기'일까? 그래서 안 된다. 이봉주에게 힘을 준 아버지의 존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살아 있어야 하고, 아버지들도 힘내야 한다. 아버지들 힘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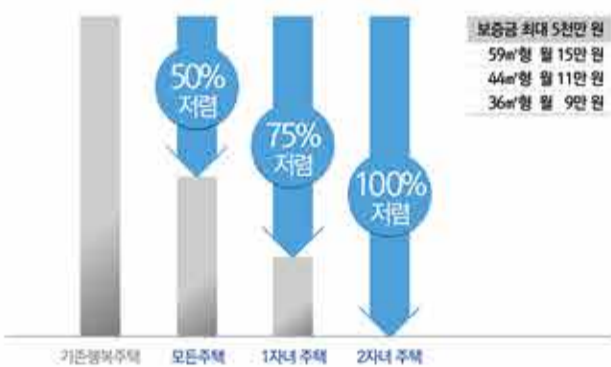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의 새로운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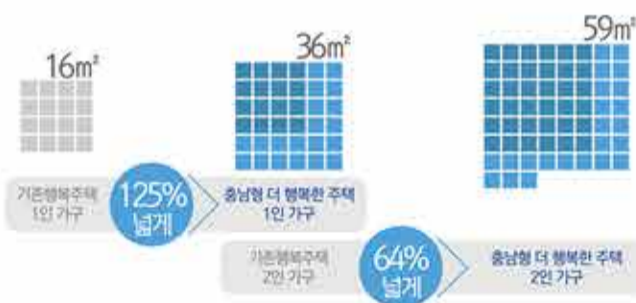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충남도가 내놓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출산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저가 임대료, 넓어진 주거공간, 더 안전한 주거환경은 지금까지 나온 국내의 모든 행복주택을 압도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청년 및 저소득층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을 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 또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수도권에 집중된 신혼부부 청년 주거정책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시안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실질적 청년 주거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충남의 실험은 신선하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택문제에 대해 충남도가 정면으로 승부를 걸었다. 클래스가 다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소개한다. /도정신문팀

1 주거비 부담은 더 저렴하게
처음부터 반값, 자녀가 생기면 추가 감면



2 공급 면적은 더 넓게
혼자여도 보다 넓게, 둘이면 더 넓게



3 출산 지원은 더 확실하게
출산 후엔 더 오래, 더 저렴하게



육아 걱정없는 주거 복지

-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건강 걱정없게
- 물놀이 시설,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등 육아를 즐겁게
- 바닥 충격음 차단 시공법으로 층간 소음 걱정없게
- 작은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등으로 교육을 신나게
- 국공립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으로 보육 걱정없게
- 가변형 구조설계로 가족 구성과 용도에 따라 공간 구성을 자유롭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주거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일은 없도록



2022년까지 선도사업 1,000호 우선공급
전체 5,000호 공급 계획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아산 배방힐튼 도시개발사업지구 28호
부지면적 25,582㎡(7,738평), 공급량 600호, 25층



“마을도 살아 있는 생명체... 초록이 꿈틀대는 친환경마을 꿈꿔”

더 행복한 마을

⑫ 서산 초록꿈틀마을

G+ 운동, 초록꿈틀의 목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꿈꾸며
갖고 있는 자원의 보존부터

다양한 체험·숙박프로그램 ‘인기’
학교로 찾아가는 ‘농부선생님’ 등
작년 1만 7000여 명 함께한 곳



친환경농법으로 농사 지은 감자 수확에 열중인 아이들의 모습

서산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갑자기 찾아든 농촌 풍경, 5월 햇살과 만발한 연산홍 사이로 타칭 젊은 이장이 자 자칭 장기집권 위원장, 초록꿈틀마을의 전양배(45) 위원장이 취재팀을 맞아 주었다. 부흥에 속한 음암면 부산2는 전 위원장의 고향이다. 1994년 대학 진학으로 잠시 고향을 떠났다 2000년 어머니의 병환으로 예상보다 이른 귀향길에 오른 그는 ‘출향인이 돌아오는 마을, 대대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게 됐다.

당시만 해도 부흥 권역은 농사와 토목현장일을 겸하는 주민들이 많아 부유한 편이었고,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지녔지만 시내와 가까운 탓에 시내로 출퇴근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그러나 남은 주민들 대부분이

특별한 꿈과 희망이 없는 상태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은 특별히 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이 돌아와 가업을 잇고 마을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고 뿌리를 내린 것처럼, 마을의 자손들이 언젠가 돌아올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갔다. 2004년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는 인근의 4개 행정리(부산1·2리, 울목 1·2리)를 합친 부흥권역 초록꿈틀마을의 위원장을 맡게 됐다. 지금껏 부산2리 이장과 초록꿈틀마을의 위원장을 겸하며 자칭 장기 집권해 오고 있지만, 초기에 추축이 된 또래의 주민들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머지 마을 이장님들을 비롯해 원로들의 든든한

지원으로 큰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권역 사업 시작 당시 전 위원장은 ‘G+ 운동’을 추진하며 마을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곧 ‘Green Village(깨끗한 마을), Good Food(좋은 음식), Great Human(정겨운 이웃)’을 더해 나가자는 것으로,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며 폐기물을 정비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 지은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이웃 간 서로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셈이다. 이 목표를 담아 알파벳 소문자 g와 b를 합해 마을의 로고를 만들고, 지난 2010년 마을 도농교류센터 준공이 시작될 때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이름 공모도 진행했다. 주민들은 마을에 위치한 윤석중



전양배 위원장

아동문학가 생거지를 모티브로 생동감 넘치고 친환경의 이미지를 담아 초록이 꿈틀대는 또는 초록빛 꿈을 만들어내는 틀이란 의미 등을 띠는 마을이름을 정하게 됐다.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푸르른 자연과 그 속에서 친환경농업을 통해 구축한 생태환경이다. 서산 전체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의 3분의 1이 마을 안에 있을 만큼, 주민들은 생태복원과 보존에 한뜻을 보인다. 4개 마을 가구 중 초록꿈틀마을의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농가가 70여 농가로, 친환경쌀농사를 비롯해 사과 과수원, 전통 장류 생산, 양파·마늘·감자 등 다양한 농사를 겸하고 있는 각 가구는 각자 여력과 상황에 따라 마을 활동에 참여한다. 권역이 넓은 만

큼 체험객이 도농교류센터 내뿐만 아니라 각 농가에 분산돼 맞춤형 혹은 선택적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라고.

5월말부터 6월은 1년 중 체험객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5월 말엔 가족 단위 모내기체험을 비롯해 오색 절편과 칼국수 만들기 등을 경험할 수 있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확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서산 대표 육쪽마을을 비롯해 제철 감자 캐기 등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참여한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농촌의 영세농가와 도시의 농가 간 결연을 통해 영세농의 소득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생각 중이다.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계약 재배함으로써 농가는 판로를 얻고, 도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양의 공간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15년간 마을 일을 꾸려오며 마을 어른들이 “마을 사업 덕분에 전국 여러 곳을 다녀보고,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어 기쁘다”고 말해 준 것이 보람이라는 전 위원장, 그는 앞으로도 소득 증대보다는 초록빛 꿈을 꾸는 행복한 주민들이 더욱 많아지는 마을의 내일을 꿈꾼다.

/손유진 syj0319@korea.kr

천안 의료, 해외개척 노크

베트남서 의료관광 상담 활동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등 본격

[천안]천안시가 지역 특화 의료기술로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천안시는 8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메디칼 투어리즘 2019’에 참가하는 등 본격적인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에 뛰어 들었다. 베트남 보건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세계 30여개국 1만3000여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인천·전북·제주와 기초자치단체로는 천안이 유일하게 참가했다.

참가한 천안 의료기관은 천안충무병원, 케이엠(KM)성형외과, 삼성비뇨기

과로, 성형가상 시뮬레이션 체험제공, 치료 전후 자료 전시, 방문자 상담 등을 펼쳤다.

또 천안시의료관광협의회와 국외의료관광 에이전시인 가온트래블은 베트남 의료기관, 마용협회 등과 환자 유치를 위한 상담활동을 벌였다.

천안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기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천안시 제공

홍성한우 육포 하나로마트 출시

저지방 살코기가 특징

[홍성]홍성한우 육포가 상표등록을 마치고 농협하나로유통에 출시된다.

홍성군은 홍성한우 브랜드 참여농가들이 지정 가공장을 통해 홍성 특산물인 한우를 이용한 홍성한우가 농협하나로유통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홍성한우 육포는 앞으로 전국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앞다리살, 사태, 양지, 홍두깨, 우둔살 등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순수 살코기로 이루어진 저지

/홍성군 제공



방 부위를 활용해 그 맛을 한층 더한 것이 특징.

군은 이번 육포 출시를 계기로 육포, 장조림, 불고기 등 저지방 부위에 대한 가공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권순우 대한민국 간판으로

올 테니스 챌린저 두 차례 정상

[당진]테니스 선수 정현을 이을 한국 테니스 유망주로 평가받는 당진시청 소속 권순우(22)의 올해 상승세가 뜨겁다.

권순우는 지난 5일 서울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린 비트로 서울오픈 챌린저 단식 결승에서 맥스 파셀(호주)을 2-0(7-5, 7-5)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권순우의 올해 챌린저 대회 우승은 이번이 두 번째다. 권순우는 지난 3월 요코하마 케이오 챌린저 대회에서도 오스카오테(독일)를 2-0으로 물리치고 이미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올해 권순우의 상승세는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을 뛰어 넘는다. 지난 6일 발표된 세계랭킹도 서울오픈 전보다 27계단 뛰어 오르며 135위를 기록했다. 2016년 1월 645위였던 순위가 3년 여 만에 무려 510계단이나 경중 뛰



어 오른 것.

권순우는 올해 4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프랑스오픈과 US오픈 테니스 대회 참가할 계획이다.

/당진시 제공

금산인삼 울산박람회 성료 불황 불구 7억여 원 매출 기염

[금산]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금산인삼이 울산박람회에서 7억여 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달 초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수삼, 인삼가공품류

등 관내 30여개 업체와 생산단체가 참여해 홍보관축전을 펼쳤다.

울산지역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도 8000여 명의 시민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며 건강체험 및 알뜰쇼핑을 즐겼다.

이번 금산인삼 울산박람회는 페이스 북 타깃 마케팅을 통해 기존 주요고객

인 중·장년층 뿐 만 아니라 젊은 층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울산에서 열린 금산 박람회에는 재울 충청향우회(회장 문기남), 재울금산향우회(회장 김창기)의 도움이 컸다. 금산인삼 울산박람회를 찾은 베트남 바이어는 1억여 원을 상담했다.

/금산군 제공

이삼평 도조제 日아리타에서 거행

일에 임란 당시 도자기 전파 매년 공주-아리타 교류

[공주]일본 도자기 문화를 전수한 공주 이삼평 도공을 기리는 제116회 이삼평공도조제가 일본 규슈 아리타에서 한일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공주 금강에 살던 이삼평은 임진왜란 중인 1596년 일본에 포로로 피랍되었으며, 아리타 지역에서 자기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만든 도자기는 일본 전역과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일본 도자기의 성지(聖地)가 된 것이다.

일본 아리타에서는 도자발전에 큰



업적을 세운 이삼평공을 도조(陶祖)로 섬기며, 그가 가마를 연 300주년인 1916년에 ‘陶祖李參平之碑’를 건립, 매년 5월 4일 이삼평도조제를 지내오고 있다.

신용희/금강뉴스 s-yh50@hanmail.net



청양·공주·부여 생활권協, 협력 강화

행정구역 초월 백제권 유대감
관광지 요금혜택·자원활용 모색
경계 민원 해소·균형발전 도모

[청양]청양군과 공주시, 부여군으로 구성된 생활권협의회(협의회장 김돈곤 군수)는 최근 협의회를 열고 금강권, 백제문화권, 보령선 등 공통 의제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8일 청양군청에서 김돈곤 청양군수, 김정섭 공주시장, 박정현 부여군수는 생활권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선진사례 공동 벤치마킹을 비롯, 생활SOC사업,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 발전사업 대한 시·군 연계협력사

업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주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3개 시군이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금강, 보령선 설치 등 세 지역이 함께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공통분모를 찾아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며 공동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유럽은 문화생활권이 국가와 국경을 초월하고 있고, 세 지역은 금강과 백제문화라는 큰 자산이 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 지자체 주민들은 나라원 이

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7곳의 시설에서는 20~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지역 주민의 무료 이용시설로는 공주시 공산성, 석장리박물관, 송산리고분군과 부여군 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공남지, 정림사지, 서동요 세트장, 민수산휴양림, 청양군은 갑산자연휴양림 등이다.

2014년에 구성된 이들 3개 지역 생활권협의체는 생활기반시설과 관광시설을 함께 누리고, 지자체간 균형발전도, 경계지역의 민원해소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억제해자는 취지에서 설치됐다.

이관용/청양신문사
lee@cynews



송화가루 '송화소금' 본격 생산

5월 들어서 태안의 천일염전은 송화가루가 날려 쌓이면서 지역 특산물인 명품 송화소금이 본격적인 수확이 한창이다. 송화가루는 천일염에 독특한 풍미를 가미해 송화주, 송화강정, 다식 등을 만드는데 이용되기도 하며 단백질과 탄수화물 및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C도 풍부하다. 송화가루에 포함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지방간을 해소하고 노화방지 및 피부미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염전 일꾼들이 마그리 염전에서 송화소금을 채취하고 있다.

/태안군 제공

국내 최초 '흑요석' 특별전

공주 석장리박물관 528점 전시

[공주]공주 석장리박물관에서 국내 최초로 '흑요석'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다.

흑요석을 통해 선사인들의 삶과 네트워크를 알아보는 '바다를 건너 선사인들, 흑요석의 길' 특별기획전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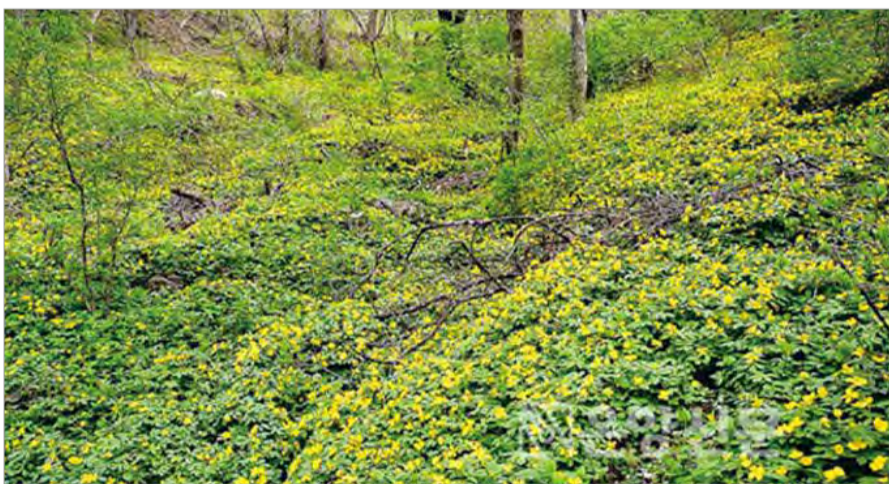
흑요석은 국내에서는 1970년 공주 석장리 유적 조사 중 처음 발굴됐으며, 이를 계기로 흑요석이 한국 구석

기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까지 흑요석과 연관된 선사인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흑요석 유물이 비교 전시됐다.

흑요석은 국내외 선사시대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전시로 개최되는 것은 공주 석장리가 처음으로, 유물 수량도 528점에 이르는 최대 규모이다.

/공주시 제공



광덕산 자락에 피나물 군락 장관

아산시 송악면 광덕산 자락이 노란꽃으로 뒤덮였다. 밭디딜 틈 없이 뒤덮은 이 꽃은 피나물(비추천명 노랑매미꽃)로 양귀비과에 속하며, 5월에 선명한 노란색꽃이 핀다. 광덕산에서는 이 마당약수터 주변 군락이 유명하며 여러 곳에서 대규모 군락이 관찰되고 있다.

김병섭/온양신문
kimkim3347@gmail.com

해풍맞은 서천 민들레 싸 드실래요

토종민들레 쌈채용 인기
전국 생산량 절반 점유

[서천]해풍을 맞고 자란 서천산 민들레가 농가소득의 효자로 자리 잡고 있다. 서면과 비인면에서 재배되는 쌈채용 토종 민들레는 재배면적이 총 6ha에서 36농가가 참여해 83t을 수확해 3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서천 쌈채용 토종 민들레는 전국 생

창출할 수 있어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천군은 지역 내 일부 농가에서 소규모로 재배해오던 민들레를 2014년부터 권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해 표준재배기술 보급 등을 통해 최고품질의 민들레 생산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해풍을 맞으며 재배되는 민들레는 부드럽고 특유의 쌈쌀한 맛이 일품이다.

지난 2월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가격은 상자 당 1만2000원~1만5000원에 출하됐다.

김장환/서천신문사
news1128@hanmail.net

디스플레이 반도체 SW기술력

청년기업이 미래다

(주)씽크소프트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

“유연한 혁신적 사고가 원동력”



[아산]열정과 독심을 기반으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청년 벤처기업이 있다.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위치한 (주)씽크소프트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라인 장비 제어용 소프트웨어업체이다.

이 회사 박주현(38·사진) 대표는 2016년 10월 직장동료와 함께 창업의 등지를 틀었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사명을 ‘씽크소프트(ThinkSoft)’로 정했다.

기술개발 노력과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통해 2018년에는 70%이상 성장시켰다. 2019년에도 공장 자동화 관련 물류장비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꾸준한 수주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주)씽크소프트는 현재 17명의 직원

이 근무하는 작지만 내실 있는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박 대표는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영역 확대와 그동안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내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자 자동화 생산 라인 개발참여 등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창업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성장기반을 강화를 위해 신제품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솔루션, 센서, 모니터링 개발 등으로 30인 이상 기업으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이 꿈”이라며 “소프트웨어에 강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미영/아산신문
3655502@hanmail.net

71세 성악 할머니 “나 아직 안 늙었어”

대학 입학한 김숙희씨 제2인생
“목표 세웠다면 지금 시작해야”

[당진]어려서부터 노래를 즐겨 불렀던 소녀는 머리카락이 희끗하게 샌 할머니가 됐다. 어릴 적부터 품었던 노래에 대한 꿈을 고회가 되어서 펼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71세 김숙희(사진)씨. 올해 백석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성악과에 입학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5년 전 당진으로 귀촌한 그녀는 대호지면 두산리 노인회에서 부회장 겸 여성회장을 맡으며 마을 일에도 열심이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을 해야 겠다고 생각했죠”

노래할 때면 마음이 맑아진다는 그녀. 고된 끝에 성악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지난 3월 김숙희 씨는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당진에서 서울로 향한다. 김숙희 씨는 “등교할 때면 남편이 버스타미널까지 배웅하고, 마중나온다”며 응원해주는 남편이 고맙다.

숙희 씨는 “학교에 다녀보니 나이가 많다고 봐주는 것은 없더라”며 “여느 대학생들과 같이 똑같이 공부한다”고 학교 생활을 소개했다. 무사히 4년 동안 학교를 잘 다녀서 졸업하는 게 목표다. 뚜렷한 목표가 세워졌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숙희씨는 말한다.

김예나/당진시대
yena0808@hanmail.net

경영이 아니라 복지라는 이 ‘사람’

결혼이주여성 위한 사회적기업
편명희 대표 “더 많은 관심을”

[당진]당진에서 10년째 운영되어온 사회적 기업이 있다. 1993년부터 최초 여성이장으로 13년, 2010년부터 시의원 8년을 걸쳐온 편명희 대표(72·사진)는 사회적기업 ‘사람’의 대표이사다.

처음 사회적 기업 ‘사람’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 12명의 직원이 봉제교육을 받고 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실 경영보다는 복지 쪽에 가깝다고 말하는 편 대표는 인간미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 돈을 들여가며 버텼다. 그래도 점점 재정이 어려워져 현재 직원은 6명으



로 줄었고 근로시간도 하루 3시간으로 단축됐다. 이곳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제품이 청소용마대자루이거나 기관납품들이라 기성제품이라서 경쟁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편 대표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한 기업인만큼 시도에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윤성/당진신문
psychojys@daum.net



전통주 명인 되고픈 17세 소년의 꿈

한산모시 세계에 알린다

충남인

천안 병천고 이호림 군

14살 때부터 막걸리·청주 담가 전국 각지 명인 찾아가 전수 본인 이름 건 식당 여는게 목표



익살스럽게 술병을 들고 연출한 이호림 군의 중학교 졸업사진.

이번 '충남인' 인터뷰는 특별히 독자와의 만남으로 진행했다. 본지에 애독자엽서를 보내 자신의 특기와 장래희망을 밝히며 도정신문의 건승을 기원한 이호림 군에 화답하기 위해서다. 학업과 취미를 병행하며 차근차근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이 군의 앞날을 응원한다.

본지에 독특한 사연의 애독자엽서를 보낸 이호림(17) 군을 만난 곳은 천안 병천고등학교. 학생 신분 특성 상 점심시간을 틈타 만난 차였다. 급히 점심 급식을 먹고 혈레벌떡 뛰어나온 이 군은 단정한 교복차림의, 영락없이 옛된 고등학생의 모습이다. 평범한 또래 청소년의 모습이지만 이 군의 꿈은 다소 특이하다. 미성년자인 이 군의 꿈은 바로 '전통주 장인'이다.

중학생 때부터 틈틈이 각종 전통주를 빚어왔다는 이 군은 SNS를 통해 술을 빚는 과정을 공유하거나 전통주 명인을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는 등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전통주를 빚는 청소년이라니, 무엇보다 계기가 궁금했다.

"시골에 사는데다 할머니께서 술을 이따금 빚으셨기 때문에 전통주는 어

주 빚는 법을 정리한 책을 참고했다. 방 한 칸에 들여놓은 옹기에서 숙성시켜 용수로 거른 삼해주는 꽤나 성공적이었다. 맑은 담황색의 술은 빛깔 만 큼이나 맛도 좋았다. 이 군의 술을 언 제나 냉정하게 시음하는 친할머니의 평가라고 이 군은 설명했다.

"할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아무리 책을 따라 한다고 해도 술을 빚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미묘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거든요. 할머니께선 예전부터 집에서 제사용 술을 빚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주세요. 처음엔 어린 녀석이 무슨 술이냐며 마뜩치 않게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큰 응원을 보내주고 계세요."

전통주 장인이 돼야겠다고 결심하면서 부터는 전국 각지의 명장들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있다. 전남 장성 김병기 한희지공방 대표는 이 군의 노력을 기특하게 여기고 각종 노하우를 전수하는 스승 중 한 명이다. 전통주를 알면 알수록 자신감과 목표의식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이 군은 말한다.

이 군의 꿈은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식당을 여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이 군이 담근 전통주들과 그 술들에 어울리는 다양한 요리가 선보인다. 이 군은 머지않은 그날을 기대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학생 신분으로 혼자 책을 보며 하는 게 조금 외롭지만 어디에선가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하고 싶어요. 혹시 제 또래를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금세 흐르테니 성인이 된 제 미래가 기다려져요. 충남의 전통주 장인으로 성장할 이호림의 앞날을 응원해주세요."

/김혜동 기자 khdf1226@korea.kr

주경자 명인, 모시장신구 보급 전수관 건립·교재발간 희망



손끝 하나만으로 만들다 보니 바늘 끝과 손맛이 어우러져서 흉내 낼 수 없는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산모시를 보면 겨우내 모시를 짜던 어머니의 고단함이 떠오른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꺾지 못하던 어머니는 농번기가 끝나자마자 처마 밑에 걸어 두었던 모시를 잡고 모시 짚기에 한 겨울을 나셨다.

한필은 큰딸 혼수비에 한필은 아들 등록금으로 한필은 내년 농사에 쓰일 비료 값으로 정해 놓고 길고도 고단한 겨울밤을 지새우셨다. 한산모시는 1500년을 이어진 고단한 민중의 삶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한산모시가 15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입는 모시에서 먹는 모시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한국문화예술명인 주경자(73) 씨의 바늘을 통해 장신구나 가정의 인테리어소품을 만들어 내는 생활모시로 꽃피우고 있다.

주경자 명인이 한산모시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생활용품은 모시노리개를 비롯해 짬술, 다기보, 약낭, 무명연잎다포, 모시조각겹보, 오방낭, 수저집, 술병집 등 다양하다.

모시의 독특한 질감과 자연에서 빚어낸 색상들이 어우러지면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대한민국 모시 짬술 공예 첫 번째 명인인 주경자 씨는 서천읍 화곡리가 고향으로 20년 간 우리 고유의 전통규방공예를 연구하고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모든 작품을

한 땀 한 땀으로 모시의 전통을 잇고 조각을 잇고 정성을 이어 모시위에 바늘꽃을 피워낸 주경자 명인의 작품에 찬사가 쏟아진다. 한산모시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서천읍 군사리에서 공예방을 운영 하는 주경자 명인은 염색, 바느질, 전통자수, 전통매듭 등을 지도하며 한국의 미를 알리는 보급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주경자 명인은 "예전에는 모시가 삶의 일부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기피하면서 명맥을 잇기조차 힘들다"며 "서천의 젊은 여성들이 모시교실을 통해 모시를 배우고 모시의 매력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명인은 한산모시의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 전시관과 전수관을 건립하는게 목표다. 전통규방공예와 관련한 전문서적을 만들어 자료를 남기겠다고도 했다.

김장항/서천신문사 news1128@hanmail.net

주민 소통 늘자 마을 대소사도 '술술~'

주민자치1번지

⑦온양3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소통공간 '소쿠리' 개소 소식지 발행하고 나눔장터 열어



소문난 장터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온양3동은 아산시의 동북부에 위치한 도농복합 지역이다. 최근 대형아파트 건립에 따라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젊은 입주민들과 기존 고령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에 온양 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다양한 '소통의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선 마을의 사랑방인 '소통나눔공간-소쿠리'를 열었다. 소쿠리는 전문 바리스타가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 값 대신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는 공간이다. 약 1년 6개월 간 모인 기부금 중 일부는 2018년 3월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다.

온양3동 주민자치위는 이웃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은 마을소식지를 발행해 마을 소식을 공유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취재나 기사 작성 경험은 없었으니 주민자치위원회 소식지 발행에 한계가 있었다. 고민 끝에 마을신문 주민기자단을 구성했다. 마을 소식지에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식과 미담이 소개되고 있다. 사랑방과 소식지로 주민 소통을 이끌어온 주민자치위는 마을 주민들이 심시일반으로 참여하는 장터도 개설했다. 이른바 '소문난 장터'다.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아나바다 장터가 열리자 온 가족이 참여했다. 장터는 마을잔치처럼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장터 기간에는 환경보호 캠페인도 전개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온실가스 줄이기, 미세먼지 정보 확인 홍보물 배부 등이 이뤄졌다. 이로써 아나바다 장터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 차원의 행사에서 벗어나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넓혀갔다.

소문난 장터를 준비하며 1364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

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것도 행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됐다. 이로써 '소문난 장터'는 지역 주민에 의한 행사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온양3동 주민자치위원회 이현상 위원장은 "소문난 장터를 준비하고 운영하며 온양3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보람을 느꼈다"며 "소문난 장터가 단순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연례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제 온양3동 주민들은 마을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충남형 동네자치 성과와 방향 사례집 /김혜동 khdf1226@korea.kr

유소아 요로 감염

건강칼럼



김경희
홍성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우신염은 고열, 옆구리 통증, 동통 및 구도가 특징이며 방광염은 빈뇨, 배뇨관란, 요실금 및 하복부 동통이 동반된다. 진단은 소변검사와 소변 배양검사로 확진하며, 소변검사로 요로감염이 확진된 후에는 경우에 따라 요로계 영상검사로 신초음파 검사, 배뇨 방광 유도 조영술(VCUG), 신스캔등을 시행할 수 있다.

소아 요로감염은 소아에서 흔한 세균 질환의 하나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신 반흔을 형성하고 고혈압과 말기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해야되는 질병이다.

요로 감염이란 요로(소변이 흐르는 길)에 감염이 있는 것으로 방광염의 침범 부위, 증상 유무에 따라 하부 요로 감염(방광염, 요도염), 상부 요로 감염(급성 신우신염, 무증상 세균뇨(증상 없이 소변에 세균이 존재하는 상태)로 구분된다.

빈뇨는 여아의 3-5%, 남아의 1% 정도, 설명이 되지 않는 고열을 보이는 영유아의 4-5% 정도가 요로감염으로 진단되며 무증상 세균뇨는 여아에게 많다. E. coli(대장균)가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요로감염의 75-90%를 차지한다.

증상은 신생아, 영유아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고열이 흔하여 돌린 환아가 발열만 있는 경우 소변검사가 꼭 필요하다. 급성 신

급성 신우신염에서는 항생제 투여가 지연된 경우 심각한 신 반흔이 발생할 수 있어 진단 즉시 신속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보통 10-14일간 치료하며 초기에는 입원시켜 정맥으로 투여하다가 열이 내라고 소변 배양검사가 음성이면 경구 약제로 바꾸게 되며 방광염이 확실한 연장아에서는 처음부터 경구로 3-10일간 항생제를 투여한다. 무증상 세균뇨는 치료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예방적 항생제는 급성 신우신염의 재발이나 신 반흔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방광 요관 역류)시 사용한다.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배뇨가 가장 중요하다. 배변 후 앞에서부터 뒤로 닦도록 훈련하고 변비 등이 있으면 같이 치료해야 한다. 포경 수술은 요로 감염의 빈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연령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홍창의 소아과학

도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이끈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발굴을 위해 전방위적 연구모임을 풀가동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 보폭과 눈높이를 맞춰가며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넘치는 곳은 깎아내어 균형있는 사회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도민 생활과 밀접된 정책발굴로 도민의 기와 흥을 북돋우며, 충남호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정책나침반이 될 충남도의회 12개의 연구모임을 대표와의 일문 일담으로 소개한다.



행정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 참여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동하는 충남도의회

⑥행정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 (대표 한영신 의원)

연구모임 구성 계기는

“충남도의회는 그간 충남도 정책의 방향에 대한 도의 바로메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도의 정책들은 혁신에 대한 다양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혁신사례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사례에 대한 수집과 현 정책에 대한 조언과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한 해외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성과들

을 검토하고 현재 도민의 입장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 태도 및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성공 기준을 조망하고 그 조망된 것들을 통하여 집행부의 혁신적 역동성에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성과는

“2019년 3월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모임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모임대표인 한

영신 의원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의원, 충남연구원 송두범 연구원, 김진영 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박창원 부교수, DNA 서비스디자인 전문숙 실장, 남서울대학교 추종호 교수, 충청남도 혁신정책팀 한미라 팀장 등 총 8명이 참석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박창원 부교수의 ‘서비스 디자인 관점의 행정혁신 사례 연구’라는 주제발표로 연구모임의 방향을 제시했고 창립총회를 통해 도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을 통하

여 행정 서비스 혁신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19년에 약 4회 정도의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행정서비스 혁신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우수한 사례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충청남도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에는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정책 제안 및 조례제정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정 정책 제시 방향은

“현재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다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가 집행부의 시각에서 분석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모임을 통해 서비스디자인의 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도의회는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각오 한 마디

“행정기관의 서비스 혁신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갈망이 있어왔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혁신적 태도 및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오늘의 연구모임이 충남도의 행정 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성공 기준을 판단하고,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통하여 집행부의 역동적인 혁신정책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문화도시 구축, MICE 산업 찾는다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 세미나

충청남도의회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대표 여운영 의원)은 지난 3일 ‘충청남도의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MICE 40 육성 전략 세미나’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부연구위원의 ‘MICE 산업 개념과 정책동향’과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MICE전공 허준 교수의 ‘MICE산업 선행사례’로 진행됐다.

또한, 관광 분야의 전문가로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심창섭 교수와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이슬기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회 대표인 여운영 의원과 김연 위원장, 김옥수, 김기영, 김한태, 정병기, 최훈, 황영란 의원

들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모임 간사인 충남연구원 정지은 박사의 제안으로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연구모임 회원인 충남연구원의 최돈정 박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김동규 본부장, 김제곤 책임연구원, 도 문화정책과 허창덕 팀장, 관광진흥과 강병락 팀장 등이 세미나에 함께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충청남도의 경쟁적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는 MICE 전략 수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충청남도 MICE 산업 성장이 지역브랜드 향상, 도민의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제안됐다.

MICE 산업은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

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를 유지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산업이다.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관련 여러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여운영 의원은 “MICE 관련 관광객의 경우 일반 관광객보다 소비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 효과가 크다”며 “충청남도에서도 MICE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연구모임은 세미나를 바탕으로, MICE 관련 현장답사를 통해 도민 모두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충청남도의 문화·관광 정책 진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 땅’

행정자치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지난 2일 도정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수소산업 관련 기업을 방문 하였다.

먼저 관할권 분쟁으로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그동안의 대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충남도

가 승소했음에도 2010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뒤집어 또다시 소송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위헌적·자의적 정부 결정은 부당하며, 관할권 회복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하고 협력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공휘 위원장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의 땅으로 그동안의 쫓돌집회를 비롯한 충남도민·당진시민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법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당진·평택항 매립지 방문에 이어 아산에 위치한 (주)유한정밀을 방문해 송유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유한정밀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충남도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수소경제 육성 정책과 관련한 수소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주)유한정밀을 방문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수소자동차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충남도가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Wee스쿨(高)’ 신축현장방문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지난 9일 (가칭) ‘충남 Wee스쿨(高)’ 건립현장을 방문했다.

‘충남 Wee스쿨(高)’은 학교부적 응학생의 심리 정서적 문제의 근원적 치유, 돌봄, 교육활동을 위해 충남교육청이 설립한 각종학교(대안)이다.

아산시 둔포면에 건립 중인 ‘충남 Wee스쿨(고)’ 신축현장을 방문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간 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착공을 시작한 ‘충남 Wee스쿨(고)’는 舊 염작초등학교 이전 교지 부지 1만3951㎡를 활용해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419㎡ 규모로 건설된다.

청소년 건강증진 토대 마련

문화복지위원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 천안7)는 지난 9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보전복지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청소년 월경관란증 및 약물 오·남용 등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홍성1)을 대표로 24명의 의원이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26일 (금) 공동으로 발의 했다.

본 건의안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법적 위상 확보, 국가정체성 강화, 국가상징으로서 국민 공감대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조승만 의원

선양활동, 무궁화꽃 품종의 개발·식재에 대한 예산지원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문헌상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되기를 희망한다”며,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뜻을 밝혔다.



제311회 임시회 5분발언

‘친일청산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은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내 일제잔재의 전수조사와 함께 충남의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권 의원

당사자들은 호가호위 하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친일청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충남도내 일제 잔재의 전수조사와 함께 충남의 부끄러운 역사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위인을 그린 표준영정 작가가 친일행위 작가임을 지적하고 친일 화가들이 그린 표준 영정의 지정철폐를 촉구했다.

김영권 의원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하며 투쟁할 때 친일 행적의

‘토종 씨앗’ 보존 대책 필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서산2)이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토종씨앗의 멸종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사라지는 토종씨앗의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토종 씨앗 사업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의원

김 의원은 “종자 회사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내야 하므로, 종자를 최대한 많이 지속적으로 팔았다”며 “농민들 또한 수확량이 많고 병해충에도 강한 신품종을 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의 토종씨앗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토종 씨앗의 멸종과 감소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토종 종자의 멸종과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충남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가칭 ‘충청남도 토종 씨앗 복원센터’를 설립해 사라지는 토종 씨앗을 보존하자”고 주장했다.

드론농업 활성화 및 지원책 촉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부실한 드론관련 사업내역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방한일 의원

동안 농촌지역에 1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3.1만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농가가 소규모 경작 및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드론농업은 접근성 및 운용이 쉬워 농약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농업인의 건강까지 지키며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5분 발언은 부실한 충남도의 드론농업 예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차후 종합적인 드론농업의 활성화 및 종합적인 지원책을 도에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오는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11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향후 10년

우리 밀-학교급식 연계 필요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밀의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금봉 의원

양금봉 의원은 “지난 2017년 기준 충청남도 밀 생산량은 1513톤이고 이 가운데 40%인 600톤만을 수매 하였으며 나머지 60%는 자율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나 개별 소비처를 찾지 못해 재고가 쌓여 농민들은 어쩔수 없이 재배 면적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우리 밀 소비와 학교급식 연계를 제안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충남도는 우리 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급식과 연계해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립대 학과 창설 제안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이 제31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의 특성을 살려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발전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영우 의원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충청남도 대전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있으나 해양관련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대학교가 없어 해양 관련 분야를 배우고자하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충남도립대에 해양 특화 관련 학과를 신설해 보령에 캠퍼스를 설치할 경우, 충남해양과학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해 온 출생률로 인해 고교졸업생수와 대학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향후 학령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로 교육부에서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전국대학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충청남도의 특성을 살린 학과를 창설, 지역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서산 대산항 배후 인프라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1)이 제31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대산항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은 “대산항과 항만 주변의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및 수출규모는 전국 2위, 석유화학단지 규모는 전국 3위이며 이를 지원하고 있는 대산항의 물동량 처리 규모는 전국 6위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산항의 물동량 처리규모는 평택당진항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규모는 전국에서 14위, 평택당진항에 비해 5분의 1수준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확충 및 주변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장승재 의원은 대산항의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항만 배후 교통망(주차장 확보, 차선도색, 도로확장 등)과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복지분야 개선(복지회관 건립 등) ▲다목적부두 운영, 자동차 부두 조기 건설 교항만 인센티브 제도 상향조정 ▲국제여객선 개통 및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국가산단 내 우량기업 유치 절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이 제31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국가산단에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

역으로 대기업 입주 쏠림현상은 충남도내의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함은 물론 장항산단을 비롯한 남부권 지역 국가산단의 미분양률을 높여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익현 의원은 “충청남도는 장항국가생태산단에 우량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및 고령화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충남지역 미분양 면적의 70% 이상이 국가산단인데 장항국가산단의 경우 분양공고 면적대비 분양률은 22.8%에 불과한 현실이어서 기업유치가 절실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익현 의원은 “충남도내 산단의 대기업 입주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북부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서천을 비롯한 청양 등 남부권은 대기업 입주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특정 지

지역아동센터 실질적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건비 보전으로 인해 아동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 개선에 충남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황영란 의원

황 의원은 인건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가 2.5% 증가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전년 기준 10.9% ↑)이 이보다 더욱 크게 증가해 아동돌봄 등 사업이 축소되어 실질적인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황 의원은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총

액과 1개소 당 지원금액 및 종사자 지원규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열악한 충청남도 아동복지 지원 현실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충청남도의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영난 및 구인난 등 어려움에 빠진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에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실현이 우리 모두의 지향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제도 TF팀 재구성 촉구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아산4)이 지난 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 교육청 인사제도 개편 문제를 포함한 교육청의 쟁점사항’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안장현 의원

지했고, 이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도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의 오해 해소를 위해 TF 구성에서부터 다양성을 확보해현장의 여러 의견을 듣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김지철 교육감에게 “인사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전체 교육공공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향후 현실적인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에는 도 교육청의 인사제도 개편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아산지역 고교 교육감전청(고교평준화) 도입, 교원노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도 교육청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 교육청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을 인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기준안 마련

충남도의회가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대상으로 유아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오인철 의원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하는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조례안’을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유아모집 시 마다 발생하는 학부모 직접 방문의 불편함, 과열경쟁과 불투명성, 불공정성 등으로 인한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또 유아모집과 선발 계획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고, 올해로 시행 3년차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해 유아 모집과 선발을 실시하도록 했다.

오인철 의원은 “그동안 유아모집 시 마다 발생한 특정 유치원 쏠림현상과 학부모 불편 사항 등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 복리증진 ‘방점’...현미경 심사 펼친다

조례 등 50개 안건 심의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도

충남도의회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조례 등 50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8건,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동의안 6건, 건의안 4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50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조례안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



지난 8일 충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유병국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

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38건이다.

건의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서해안설치 건의안 ▲지방교육 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 등 4건이다.

특히 이번 309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강권역의 친환경 경작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공공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운영 된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격렬비열도, 세종시 복지재단, 대전 복지재단, 경북도청 신도시, 신서천 화력발전소, 스마트 원예농장, 금강권역 일원, 제1회 충남도민체전 개최장 등 현장을 방문한다.

공간 빅데이터로 삶의 질 “쑥쑥”

도의회-천안시의회-충남연구원
충남형 데이터 기반 행정 논의
조례 제정해 과학행정 뒷받침

충남도의회-천안시의회-충남연구원은 지난 3일 천안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간 빅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방안 및 충남도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의회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천안4),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천안7)을 비롯해 도의회, 천안시의회, 충남연구원, 충남도청, 천안시청, 지역대학, 국책연구기관, 민간기업에 속한 약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5명의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는 ▲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연구원 정정배 박사가 ‘공공데이터와 활동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농촌지역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방안’ ▲광주 광산구 류흥철 주무관이 ‘Data Driven Politics’ ▲서울 연구원 박은순 도시자료 분석팀장이 ‘서울연구원 도시자료 분석체계 구축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쉴울포랜드 채승기 상무이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사회 구현’ ▲충남연구원 최돈정 박사가 ‘충청남도 공간정보 기반 사회문제

분석사례 및 제언’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강릉원주대학교 손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충청남도 및 천안시 공공데이터, 공간정보, 빅데이터 실무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연 의원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가치사슬이 점점 중요해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휘 의원은 “충청남도 빅데이터 조례를 포함한 관련 조례들을 과학행정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지역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도입과 충남형 표준 데이터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윤리의식 강화한다

서울대 지방의정포럼 창립 세미나

충남도의회가 후원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포럼이 주최한 제1회 서울대학교 지방의정포럼 창립 세미나가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역할, 책임성, 윤리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이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서 충남도위원을 비롯한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0여명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펼

쳤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치분권과 포용국가 및 지방의회’를 주제로 기초강연을 펼쳤으며,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는 ‘포용국가와 지방의회’에 대해,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은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윤리성’에 대한 세션별 토론을 펼쳤다.

홍재표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반면, 중앙의 과도한 제약으로 지역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시론



김한태 (보령)
충남도의원

미세먼지정보센터, 서해안권에 설치해야!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 침해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다. 미세먼지와 전쟁이라도 해야 한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갈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앞으로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센터설립이 추진되면서 당면 과제

는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이다. 센터의 역할이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된 모든 사항과 국제협력,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연구개발 등 국가의 미세먼지 관리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첨병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미세먼지가 극심하고 그 피해가 막대한 곳에 설치해 시의적절하며 입체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바 대로 충남도는 미세먼지 발생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곳이다. 2014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령, 당진, 태안, 서천 등 충남지역에 전국 화력발전소의 60여기 중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있고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2010년 기준 7712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적 비용 2조5700억 원의 37.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 중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피해는 산출되지 않아 총 피해액이 1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그린피스의 2015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75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러한 발전소들이 40년 동안 가동 시 오는 2061년까지 평균 3만 2,0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충남지역에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충남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관찰·연구·분석이 용이하고 오염물질 배출원 점검과 관리가 타 지역보다 수월하다는 점이다. 즉,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정확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단지는 충남 내 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대기질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인 충남에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충남은 더할 나위 없는 최적지이다. 충청남도는 수도권 및 강원, 전라·경상권을 연결하는 국토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적인 미세먼지 현황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행정수도인 세종시와도 가까이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간 업무효율성 제고 및 범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충남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으로 충남도민의 미세먼지 인지 감수성이 그 어느 지역 주민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충남도 내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정부에 거듭, 거듭 촉구한다.